

네덜란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3
주요인사 / 6
외교관계 / 7
주한주재 국기관 / 10

II. 경제

경제정책 / 11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 12
주요 산업 동향 / 13
정보조사 자료원 / 20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21
무역통계 / 23
투자통계 / 25

IV. 출장가이드

기후 /	27
시차.근무시간 /	28
도량형 /	29
출입국.비자 /	29
환율.환전 /	31
물가정보 /	32
교통.통신 /	34
호텔.식당 /	35
관공서 관행 /	37
공휴일 /	37
여행시 유의사항 /	38
유용한 연락처 /	39
관광명소 /	40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4
수입규제제도 /	45
관세제도 /	46
주요인증제도 /	46
지적재산권 /	47
소비자보호제도 /	50
교역관련 국가기관 /	51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1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5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6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5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59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0
운송 /	63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5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6

우리기업 투자동향 / 68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68

투자인센티브 / 71

타당성조사 / 72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73

입지선정 / 76

공장 설립 / 77

투자관련 정부기관 / 7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9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79

조세제도 / 82

외환관리 / 84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84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네덜란드 왕국 (영문명: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현지어명: Koninkrijk der Nederlanden)
위 치	○ 유럽대륙의 북서부 - (50° 45'N - 53° 52'N, 3° 21'E - 7° 13'E)에 위치 - 동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벨기에, 북쪽과 서쪽으로는 북해에 면하고 있음
면 적	41,548 Km ²
기 후	온화 다습한 해양성 기후
수 도	암스테르담 * 행정수도는 헤이그
인 구	○ 16,337 천명(2006.6.14) - 높은 인구밀도: 1km ² 에 475명 정도 거주(벨기에 137명) - 남성(8,065,979명), 여성(8,239,547명) - 2005.9.30 기준 - 20세 미만(3,988천명), 20-45세(5,776천명), 45-65세(4,253천명), 66세 이상(2,289천명) - 2006.1.31 기준
주요도시	암스테르담(73.7만명), 헤이그(46.4만명), 로테르담(60만명), 유트레흐트(26.5만명)
민족(인종)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소수인종(모로코, 터키, 수리남)
언 어	네덜란드어, 영어(90%), 독일어(30%), 불어(20%)
교 육	10학년 의무교육(100% 참가), 문맹율: 1%
평균수명	78세
종 교	카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건국(독립)일	1558년
정부형태	내각 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Queen Beatrix Wilhelmina Armgard

나. 경제지표

GDP	4,886억 유로 (2005년) 2005년 성장률: 0.9% 구성 (농업 3%, 제조업 36%, 서비스 50%, 공공부문 9%)
인구	16,337천명(2006.6.14)
경제성장	2005 (0.9%), 2004 (1.5%)
노동력	7.5백만 상업서비스 39%, 비상업 서비스 33%, 산업 11%, 농업 3%, 기타 3%
실업율	2005 (6.25%), 2004 (6.4%)
소비자물가지수	2005 (1.25%), 2004 (1.2%), 2003 (2.1%)
화폐단위	Euro (2002년 1월부터 변경)
환율	- 1 EUR = 1,226.05 원 (2006.8.24) - 1 EUR = 1.2830 USD (2006.8.24)
외채	총 GDP의 51.8%
이자율	2005 (3.25%), 2004 (4.1%) (Long-term Interest rate)
수출입	2005년 (수출 322,516백만 유로, 수입 287,827백만 유로) 2005년 (수출 287,337백만 유로, 수입 256,990백만 유로)

다. 산업 및 교역

주요교역대상	EU(66.6%), 독일(22.3%), 벨기에/룩셈부르크(11.9%)
산업구조	-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 의 59%를 점유(제조업 비중은 22% 수준) - ICT, 바이오산업을 주요 지식육성산업으로 판단(2002 년 기준 바이오 지식 스웨덴 > 덴마크 > 네덜란드순) - 기업 IT 지출 2005 년에 본격 증가(Computable 지 설문, 04.5)
투자	- 미국이 최대의 투자국 1,450 억 달러(1,600 여개 업체) - 임금의 상승으로 비핵심 부문이전 촉진, 신 정부 우려 - 2004 년 ABN Amro, Shell 등 IT 부문 아시아 인력활용 등 밝힘

라. 한국과의 관계

□ 체결협정

- 1966. 4. 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 (66.4.29 발표)
- 1970. 4. 28 사증면제협정 서명 (70.6.1 발효)
- 1970. 6. 24 항공협정 서명 (70.12.30 발효)
- 1974. 10. 16 투자보장협정 서명 (75.6.1 발효)
- 1978. 10. 25 이중과세방지 협정 서명 (81.4.27 발효)
- 1979. 2. 28 전대차관 협정 서명 (81.6.24 발효)
- 1982. 12. 1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83.8.1 발효)
- 1995. 2. 3 해운협정 가서명

□ 무역관계

- 대한 교역
 - (한국의 수출) 2005 년 3,647 백만 불 (전년동기비 21.3% 증가): 승용차, 무선 전화기, 칼라 TV, 건설중장비, 컴퓨터부품, 모니터, 프린터 등
 - (한국의 수입) 2005 년 2,760 백만 불 (전년동기비 59.6% 증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집적회로반도체,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낙농품 등

□ 투자관계

-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 미\$ 12,967 백만 (1962-2005 년 누계, 신고기준)
- 한국의 대네덜란드 투자: 미\$ 2,717 백만 (1962-2005 년 누계, 신고기준)

□ 교 민: 약 1,200 명 (상사 주재원 포함)

- 한인회 (In De Watermolen 5, 1115 GA Duivendrecht)
 - Tel) (020) 441-2291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네덜란드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기본적인 정부기구는 국왕, 내각, 의회, 국왕최고 자문위원회,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국체

□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

국왕은 국가원수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하여 형식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각료들은 국왕 앞에서 선서를 행해야만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한 관계장관의 제청에 의해 광역지방단체의 장(주지사)을 임명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현 국왕은 1980년 즉위한 Beatrix여왕이며 부군 Claus von Amsberg공과의 사이에 William Alexander 왕세자 등 3명의 왕자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왕실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참조
<http://www.koninklijkhuis.nl/UK/welcome.html>

나. 정체

내각 책임제로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가 통상 총리가 되나, 연정구성 시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 3의 인물이 지명될 수도 있다.

내각구성은 총리가 지명하나 대개의 경우 연립하에서는 정당간 의석 배분에 따라 결정된다. 다수의 정당이 각각 종교, 직업, 계층별로 각기 다른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어한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그러나, 정당간 정치, 외교, 경제 등에 있어서 기본입장이 비슷하고 사전정책협약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 정세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네덜란드 정부기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postbus51.nl/>

다. 주요 정부기구

1) 국왕

- 지위 및 역할: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서 세습제에 의해 계승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내 정치적으로는 총선 후 정부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구성협상을 주선하는 조정자 또는 총리후보를 지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년 9 월 3 번째 화요일 의회의 개원식 (Prinsjesdag)을 주관하고 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 권한: 국왕의 권한은 그 지위가 상징적인 존재임에 따라 모든 국사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과하다. 법령 또는 중요 국정 관계문서의 서명권이 있으나 관계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왕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왕위 계승 및 순위: 왕위 계승은 세습제로 이루어지며 3 촌 이내로 한정된다. 왕위 계승 순서는 1) 남아 직계 및 직계 후손, 2) 형제, 자매 및 동 직계 비속, 3)합법적 후사가 없는 경우 상하양원 합동회의를 개최, 선출하고 있다. 국왕이 사망시 차기 승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섭정을 실시한다. 자녀는 계승권자가 의회의 승인 없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자녀는 왕위계승권을 상실하며 왕위 계승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2) 내각

- 구성: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정부각료로 내각을 구성한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내각 의장은 총리가 수행하고 있다. 각료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에 의회내의 의석 분포에 따른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의원 겸직원칙에 따라 각료나 정부 장관이 되는 경우 3 개월 이내에 택일하여야 한다.

- 권한: 법령, 국제협약과 조약, 고위관리(국정자문위원, 주지사 및 주요시장 등) 임명 등을 포함하는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의 권한을 보유한다. 법령 및 문서는 관계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각료가 의회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의회 및 정당

- 의회 : 네덜란드의 입법기관인 의회는 100 명으로 구성된 상원 및 150 명으로 구성된 하원으로 이루어 진다. 임기는 각각 4 년이며 상원의원은 주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하원의원은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 정당

- 기독교민주당 (CDA) : 1848년 자유민주헌법이 보장한 선거구제에 따라 각 종파들이 종교이념을 주축으로 집결하기 시작함으로써 개신교의 전통적인 칼빈교파와 종교의 자유로 교세를 회복한 카톨릭교파가 정치세력으로 출현한 것이 시초이다. 정강정책은 나토지지, 핵군축추구, 우주무기개발금지, 핵실험금지, 구주통합지향, 유럽연합 강화, 개발원조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빈곤추방, 인권옹호 등이다.
- 자민당 (VVD) : 자민당은 네덜란드 정당중 가장 보수적인 정당으로 민간자율우선, 정부의 통제완화, 사회보장제 축소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 감축, 나토 및 미국과의 협력 및 유대강화 등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 민주' 66당 (D66) : 민주 66당은 1966.9.15 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노동당으로부터 이탈하여 형성된 정당으로 정치개혁, 핵관련시설 폐기, 경제사회 문제에 있어 노동당과 자민당의 중도노선 견지 등을 정강정책으로 표명하고 있다.
- 노동당(PvdA) : 1884년 당시 구주 일대에 사회주의 사조가 만연됨을 계기로 창당된 사회민주노동당은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출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 확충, 나토보다는 유엔을 통한 평화외교에 중점, 군비축소, 개도국지원 강화 등을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다.

- 의회개최 및 의결방법: 1 주 1 회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추가 회의 개최가 가능함. 의결방법은 다수결(가부동수인 경우 차기 회의로 연기. 단, 사안이 긴급한 것으로 전 각료가 참석한 경우는 총리가 결정권 행사). 네덜란드 내각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참조(<http://www.minaz.nl/english/cabinet/procedure/index.html>)

4) 국왕최고자문위원

내각의 추천으로 여왕이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은퇴한 원로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이다. 일정한 직무는 없으며, 신정부 구성 등 필요한 경우 국왕의 자문에 응하고 특정 정치 문제 및 헌법 사항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3. 주요 인사

□ 현 연립내각의 각료 명단은 다음과 같음.

- Prime Minister
 - Jan Peter Balkenende (CDA)
-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Finance
 - Gerrit Zalm (VVD)
-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 Joop Wijn (CDA)
- Minister for Government Reform and Kingdom Relations
 - Atzo Noolai (VVD)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Ben Bot (CDA)
- Minister of Justice
 - Piet Hein Donner (CDA)
-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 Johan Remkes (VVD)
- 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 Maria van der Hoeven (CDA)
- Minister of Defence
 - Henk Kamp (VVD)
- Minister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 Sybilla Dekker (VVD)
- Minister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 Karla Peijs (CDA)
- Minister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
 - Cees Veerman (CDA)
-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Aart Jan de Geus (CDA)
-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Hans Hoogervorst (VVD)

-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Agnes van Ardenne (CDA)
-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 Rita Verdonk (VVD)
- State Secretaries:
 - State Secretary for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 Bruno Bruins (VVD)
 - State Secretary for Defence : Cees van der Knaap (CDA)
 - State Secretary for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 Pieter van Geel (CDA)
 - State Secretary for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 Melanie Schultz van Haegen-Maas Geesteranus (VVD)
 - State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 Karien van Gennip (CDA)
 - State Secretary for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Henk van Hoof (VVD)
 - State Secretary for Health, Welfare and Sport : Clemence Ross-van Dorp

(2006년 1월 기준)

* 네덜란드 정부인사는 www.regering.nl 에서 확인 가능

4. 외교관계

가. 외교정책의 특수 배경

지리적으로 네덜란드는 영국을 북해해안의 맞은편에 두고 국경주변의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유수한 공업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주요 하천인 라인강, 뉘르강, 쉘트강 등이 인근 주요 국가들을 경유,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연결되어 있는 등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어 해운업이 크게 발달하였음. 또한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네덜란드는 자체의 농업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는 한편, 상업 즉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게 되었음. 네덜란드가 강력한 자유무역 옹호론자로 활동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겠음.

역사적으로 스페인왕국의 지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고, 특히 17세기 해양 진출시대에는 영국 등 구주 열강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며, 현대에 와서도 2차 대전중 독일의 침략을 받는 등 주변 강대국의 틈새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서만 독립을 보장 받을 수 있었음.

네덜란드는 1568-1648년 동안의 "80년전쟁"에 의해 독립했던 과거 역사와 함께 기독교 영향 때문에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강한 신념을 전승하고 있음. 독립이후에는 기타 열강과는 달리 유럽내에서의 영토확장을 자제했던 역사를 갖고 있음.

나. 주요 외교노선

네덜란드는 유럽통합을 국가번영에 중요하며 EU는 유럽의 안정유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유럽차원에서 정책조화는 유럽이 국제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할 것이며 중, 동구국가의 EU가입은 유럽대륙전체의 안정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음.

EU회원국과의 선린관계 유지는 네덜란드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특히, 베네룩스와 독일,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에서 중립노선을 택하고 있음.

중, 동구국가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은 유럽대륙전체에 번영과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나 만약에 이러한 변화 과정이 실패한다면 유럽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 받을 것이라는 것이 네덜란드의 기본생각임. 따라서 중, 동구국가와의 선린관계와 이를 국가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은 특히 구소련상황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안보문제에 계속하여 개입 하여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NATO는 중요한 기구로 인식하고 있음.

전통적인 국가간 분쟁은 줄어들고있는 반면, 구 유고분쟁에서 보듯 인종, 지역간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쟁방지, 관리임무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고 다양한 평화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편임. 치열한 경쟁하에서의 경제이익은 유럽차원에서 역내시장 확대와 세계차원에서 특히 WTO를 통해 무역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특히 네덜란드 재외공관은 아시아에서 네덜란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국제환경정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빈곤, 인구증가, 환경오염 및 악화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개발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상업적인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농업분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농업은 네덜란드의 대 EU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중, 동구국가와 지중해 국가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음.

경제개발이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빈곤생활을 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는 개도국과의 경험증진을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보이고 있음.

다. 대외관계 및 지역주의 참여 정도

1) 미국과의 관계

전후 마셜 플랜 등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원조를 받은 바 있으며 대외무역에서도 미국은 주요 무역 대상국중 하나임. 또한 NATO를 통한 군사, 외교관계에 있어서 협조와 공군기지 사용협정체결 등을 통해 양국의 군사동맹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외교, 통상, 문화, 군사 등 각방면에 걸쳐 70여개 조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냉전 종식 이후에도 유럽의 안보는 NATO를 주축으로 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근간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경제적인 면에서도 WTO, OSCE, IMF 등에서 미국과 같은 방향의 정책이 나오고 있음.

2) EU와의 관계

무역량의 60%와 자본 및 용역의 대부분을 EU에 수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EU창설국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구주통합을 지지해왔음. 단일통화정책, 공동 외교 안보정책, 내무사법협력 등 유럽통합의 기본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독일과 입장을 같이 하여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조속한 통합을 희망하고 있음. 다만, 의사결정방식 등 EU의 제도개편 문제에 있어 네덜란드는 중위권 국가로서 베네룩스 3국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EU내 기타 소속국들과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 강대국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균형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3) 동구와의 관계

동구의 안정이 유럽안정에 긴요하며 동 지역을 장기적으로 투자진출,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며 동구제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 정책을 적극 지지 하고 있음. 현재 동구제국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 지원, Civil Society 육성, 네덜란드 기술전수 등의 형태와 IMF, World Bank를 통한 거시경제안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04년 5월 1일부로 체코 등 동구제국의 EU가입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조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임.

4) 중동과의 관계

전통적으로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정책을 지원해 왔음. 동 지역에서 평화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관계당사국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기본입장에서 구체적인 사태발전에 대해서는 EU제국과 공동 입장을 취하여 왔음.

5) 개도국과의 관계

개도국 발전지원이 네덜란드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빈부격차 해소가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에 절대 긴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GNP의 0.9 %를 점유하고 있는 국제협력 예산(ODA)은 양자차원의 직접적인 지원,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혜국의 경제구조 조정, 주민생활 여건개선 및 교육 등 성장잠재력 향상, 인프라, 에너지 등 기간산업 건설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양자차원의 원조제공에 있어 수혜국의 인권개선 등 외교적인 고려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라. 외교정책 추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리 잡아온 네덜란드 외교의 2대 근간은 NATO체제의 견지와 유럽통합의 적극 추진으로 요약되는 Atlanticism과 Europeanism이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 외교 추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음. 유럽중심의 지역주의 외교노선 고수보다는 UN을 통한 평화외교 경제중심 외교에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음

구소련의 대서방 영토확장 정책에 맞선 NATO 중심의 군사력 유지정책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다, 범세계적인 무역분쟁, 환경, 기아, 난민문제

등이 세계공동의 현안으로 뚜렷이 부각되면서 유럽중심의 외교노선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실리외교가 각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외교 노선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 UN 중심의 군사외교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국방비 삭감, 군병력 재조정, UN 평화유지군에의 적극적 참여
-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대를 통한 평화외교 → 개도국 경제협력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 EU 확대 지지 및 EU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 모색 → 가입확대 및 강대국 중심의결 체제 지양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재검토 요구
- 경제 이익 우선→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 대표부 설치, 대개도국 경험 지원 확대, 정부의 교역.통상 지원책 강화

마. 최근 외교 이슈

- 터키 EU 가입문제
 -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 네덜란드 내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음.
 - 네덜란드 연정의 다수당인 기독교민주당(CDA)은 정부의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 공식적으로 반대했으나 자민당(VVD) 및 민주 66 당(D66)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 아울러 국민들은 대부분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2005 년 7 월 네덜란드 최대의 여론조사기관인 NIP0 가 실시한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응답자중 42%가 반대를 표명했으며 20%가 찬성, 38%가 중립 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결과에 따르면 터키의 EU 으로 저임의 우수한 노동력이 유입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 총 국민 1,600 만명 중 2.2%인 35 만명의 터키인들의 범죄, 실업, 복지수당 등 현안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되고, 터키가입으로 인해 네덜란드 인들의 세금부담금 확대, 이슬람인구의 확대에 의한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 년도에 들어서 현재까지 특별한 외교이슈 없음.

5. 주한주재국기관

○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 교보빌딩 14 층
- 전화 : 02) 732-1924
- 팩스 : 02) 732-1925
- <http://www.nfia-korea.com>
- E-mail : nfiako@chollian.net
- 성격 :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의 국가투자진흥기관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 교보빌딩 14층
- 전화 : 02) 737-9514
- 팩스 : 02) 735-1321
- <http://www.nlembassy.or.kr/>

II. 경제

6. 경제정책

가. 정책: 참여, 고용, 규제완화(participation, employment, deregulation)

□ 목표

네덜란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쟁적인 경제구조 건설, 행정장애/규제 극복, 재정건실화, 노동경쟁력 확보, 등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1) 경쟁적인 경제구조 건설

네덜란드정부는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쟁적인 경제구조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적 경제구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 국내산업의 활성화, 수출촉진 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2) 행정장애/규제 극복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 및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만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애(red tape)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 정권 집권 중에 기업에 대한 행정장애를 현재의 1/4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재정 건실화

1980년대의 대규모 항공기업인 Fokker사의 도산 등으로부터 시작된 경제후퇴를 경험했던 네덜란드는 건실한 국가재정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모토아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7년까지 네덜란드는 EMU 재정균형을 목표하고 있다.

4) 노동 경쟁력 확보 추진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의 문제점중 하나를 비효율적 노동시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로존에서도 높은 노동임금과 짧은 노동시간이 네덜란드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네덜란드의 평균 노동시간은 1,340시간으로 이는 유럽연합 평균 1,615시간, 미국 평균 1,815시간보다 낮은 수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의 확대를 추진하려 계획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청(CPB)은 5%의 노동증가는 국내총생산의 3~5%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확대 추진코자 했으나 현재 국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금년도에는 추진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2003년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4년부터 회복세로 진입한 네덜란드 경제는 2005년 다소의 조정세를 거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다.

네덜란드 기획부(CPB; Central Planning Bureau)는 2005년도 네덜란드 경제성장률은 2004년 1.7% 보다 다소 낮은 0.9%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약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기획경제부는 2005년도의 경우 유가인상, 소비지수, 가처분 소득 등이 2004년과 비교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고유가와 유로존, 특히 독일경제의 상대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초 계획했던 1.2%보다 낮은 0.9%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각종 거시지표가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네덜란드는 유로존의 강력한 성장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06년 1/4분기 기준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함으로써 금년도 예상치인 2.75%보다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어 금년도 네덜란드는 2000년 이후 최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06년 6월말 네덜란드 경제기획부는 금년도 네덜란드 경제성장률은 3%에 달할 것으로 전망

가. GDP

- 2006년도 네덜란드 GDP성장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하락, 2003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던 네덜란드 경제는 2004년 1.5%의 반등, 2005년 고유가로 인해 조정세를 거쳤으나 2006년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가계소비

- 가계소비 역시 경제성장의 본격적인 궤도진입에 힘입어 2005년 대비 1.2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제조업

- 2006년 네덜란드 제조업은 여전히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대비 약 5% 이상의 생산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내수경기 회복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기인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2005년 1.7% 보다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네덜란드 기획경제부가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 기준 네덜란드의 인플레이션은 1.3%를 기록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인 1.2%-1.3%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교역

- 상품수출 및 수입은 2005년 대비 각각 7%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의 안정세, 유로존 경기회복 등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네덜란드중앙은행 및 기획경제부 전망자료, 2006년 6월 30일 발표자료)

8. 주요 산업 동향

가. 네덜란드 산업동향 개요

네덜란드는 유통, 도소매 및 운송 등의 서비스 산업이 GDP 생산의 61.9%, 고용에서 62.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가공/중계무역이 발달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기업의 집중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선도산업 분야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대변되고 있는데 SHELL, AKZO NOBEL 그리고 DSM등이 화학산업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유니레버는 음식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가전시장의 중요 거인중의 하나인 필립스도 또한 네덜란드 회사이며 또한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A-Hold 역시 네덜란드기업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와중에서 네덜란드는 또한 중소기업의 강세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기업중 76%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축적된 기술인프라가 적용되는 산업들이다. 필립스의 경우는 전체 직원의 15%가 R&D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사들과 연구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생명과학, 정보산업, 그리고 소재산업 및 전자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인구 중 약 25%정도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의 양질의 노동력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이 화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국제화된 기업문화 또한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AKZONOBEL, PHILIPS, SHELL, HEINEKEN과 같은 회사들은 그들의 활동영역을 국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국외에 많은 생산기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네덜란드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의해 인수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200,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주요 산업동향

1) 자동차 부품산업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시장은 약 58억유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타이어가 21%로 전체 부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액세서리 12%, 차체부품 및 액세서리 10%, 기어박스 5%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별 비중

Tyres	21%
Accessories	12%
Body Parts and acceories	10%
Gear boxes	5%
Parts for other lifting, handling, and loading machinery	5%
Other parts for mobile equipment	5%
Others	36%

자료원: CBI

EU 자동차 부품시장 중 애프터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OEM 마켓은 약 80%에 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 생산설비가 미미하여 애프터 마켓의 비중이 타 EU 국가에 매우 높다. 이와 관련 정확한 통계의 입수는 어려우나 신차 등록대수가 차량 생산대수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연간 약 2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는데 반해 2005년 신차 등록대수는 53만대에 달한다.

네덜란드 차량보유 대수 및 신차 등록 대수

(단위: 천대)

	차량 보유대수		신차 등록대수	
	승용차	상용차	승용차	상용차
2001	6,539	950	530	83
2002	6,710	996	511	80
2003	6,855	1,039	488	77
2004	6,900	1,021	483	75
2005	6,930	1,027	465	70

자료원: Autovak

○ 차량 내구연한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 네덜란드의 신차 등록대수는 99 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차량 교체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주된 요인은 차량의 내구연한 증가에 있다.

○ 2002 년 기준 네덜란드 차량의 평균 수명은 6.5 년이었으나, 신차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 2005 년말에는 약 7 년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처럼 과거에 비해 차량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A/S 부품수요가 OEM 부품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 나고 있다. Rai Autovak 등 자동차 관련 기관들은 향후 5 년간 애프터 마켓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Distribution Channel

- 네덜란드의 신차 판매 시스템은 네덜란드 딜러협회(Netherlands Dealer Association/BOVAG-NDA) 관할하의 3,300 여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 브랜드별로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여 영업중이며 이 같은 프랜차이즈 딜러시스템에 가입된 딜러들은 대부분 10 명 내외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신차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이들 대부분은 판매차량에 대한 보수유지 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딜러망을 운영하고 있다.

- 이 밖에 수천개의 종업원 5 명 이하의 Independent garages 도 차량 판매 및 보수유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차량 메이커에 구속되지 않고 많은 종류의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나 주로 중고차량이나 노후차량을 취급하고 있다.

- 이들 Independent garage 들이 A/S 용 부품의 주요 수요자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직수출 물량도 대부분 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 국내 수출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통채널들을 통해 수출할 수 있으나 실제 딜러쉽의 장벽이나 수입물량이 너무 작아서 직수출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Independent garages 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입 및 도매상을 접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현재 네덜란드의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는 최근 2 년간 전체 도매상의 14%에 달하는 200 개사가 다른 업체에 합병되는 등 큰 폭의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매상의 수입규모, 타겟 시장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유럽 물류기지 구축

- OEM 부품 시장의 경우 애프터 마켓과는 달리 물류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just in time’ 딜리버리를 요구하고 있다.

- 자동차 제조사들의 즉각 딜리버리 요구는 국내 부품업체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발 경쟁국과의 가격경쟁과 유럽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딜리버리 경쟁의 틈새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유럽에 물류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 물류기지의 입지로서는 로테르담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기타 안트워프, 함부르크 등을 선호되고 있다. 로테르담 등지에 물류기지를 운영할 경우, 1~3 일 내에 유럽 주요국으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과의 동등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는 딜리버리 단축 등 서비스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의류산업

- 네덜란드 의류시장은 2003 년도 6 년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2004 년 회복세로 반전되었으나 2005 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 의류시장은 '90 년대 중반부터 2002 년까지 연평균 5%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었으나 2003 년 2002 년 대비 0.6% 감소한 1,197 백만유로(겉옷 및 속옷 등 의류 전체)의 시장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4 년 및 2005 년의 경우 네덜란드 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지출의 증가세에 기인하여 의류소비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의류산업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네덜란드의류협회(MODINT; Association of the Dutch clothing and knitwear industries)는 2006 년도 네덜란드 의류시장의 규모는 2005 년과 대비 약간 상승한 수준인 0.5%의 성장세를 보여 약 1,400 백만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저가 제품이 시장의 주류 형성
 - 네덜란드 의류시장은 고급품보다는 중저가 제품이 보다 선호되는 시장임. 검소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있어 의류는 가계지출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급브랜드의 의류보다는 중저가의류가 선호되고 있다.
- 수입이 소비량의 대부분 차지
 - 네덜란드도 여타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장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소비되고 있는 의류의 약 95% 정도는 수입품이며 나머지는 중국,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 저임금 국가와의 역외가공무역형태(OPT)로 생산,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의 경우 니트류의 경우 생산기업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네덜란드 니트류 수입동향은 2005 년 총 2,740 백만 유로를 기록 2004 년 2,703 백만 유로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의 니트류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방글라데시, 터키, 홍콩, 중국, 이탈리아 등이나 독일,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은 브랜드제품 또는 하는 경우이며 공급상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국, 터키 등 저임금국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특징적인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2003 년 269 백만 유로를 기록했으나 2004 년 345 백만 유로로 2005 년 쿼터페지 이후 증가폭은 급속히 확대되어 2005 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86 백만 유로로 2004 년 대비 40% 이상 증가되었다.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감소세로 2003 년 39,915 백만 유로, 2004 년 44,304 백만 유로를 기록하였으나 2005 년도 쿼터페지 이후 수입규모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05 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733 백만 유로로 2004 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네덜란드 니트류 수입현황

(단위: 백만유로)

2004년			2005년		
순위	국 가	수입액	순위	국 가	수입액
1	독 일	434.8	1	중 국	486.5
2	터 키	345.9	2	독 일	410.3
3	중 국	345.6	3	터 키	392.5
4	이탈리아	179.6	4	이탈리아	167.3
5	방글라데시	164.3	5	방글라데시	164.9
6	인 도	120.6	6	벨기에	131.2
7	벨기에	103.7	7	인디아	130.1
8	포르투갈	103.4	8	포르투갈	81.6
9	홍 콩	86.1	9	홍 콩	77.4
16	한 국	44.3	23	한 국	19.7
총 수입액		2,627	총 수입액		2,740

HS codes : 6110 (knit apparel)

Source: World Trade Atlas

○ 자켓류를 중심으로 여성의류 판매비중 높아

- 네덜란드 의류시장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여성의류의 판매비중이 여타 EU 국가보다 높다. 여성의류의 경우 자켓류 및 니트의류를 중심으로 전체의류시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속적인 강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자켓류 및 니트의류의 경우 필수적인 구매품목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 네덜란드 의류협회에 따르면 2005 년 겨울의 경우 2004 년보다도 강우일이 보다 많고 바람 또한 더욱 거세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자켓류 및 니트의류 판매증가율은 7-8%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의류 매장에서 주로 구매

- 네덜란드 의류 관련 판매장의 경우 약 13,000 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의류를 구입할 경우 백화점, 할인매점 보다는 의류전문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네덜란드내에서 의류는 전문매장에서의 판매가 68%로 일반매장보다 2 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네덜란드의 의류매장은 대도시인 암스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 서부지역이 약 60%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아르헨 등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005년 쿼터폐지로 중국산 및 터키산 시장점유 확대중
 - 한편 2005년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큰 폭의 시장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시장의 경우 고가품보다는 중저가품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품목을 취급하는 중국산 및 EU 역내국가인 터키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대한 수입은 역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3) 화학산업

지구온난화를 방지를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키로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시장규모 340억 유로, 고용의 10%, 생산의 15%, 수출의 25%, R&D투자의 30%에 달하는 최대 산업분야 하나로서 2004년 기준 네덜란드 화학산업의 이익률은 9.2%로 산업평균 이익률 6%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정부 및 관련업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및 관련업계는 네덜란드 화학산업 발전모델을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이라는 대명제로 정의하고 중장기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내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 네덜란드 산업분야중 화학산업이 가장 혁신적
 - 네덜란드 조사전문기관인 EIM(Research Bureau EIM)은 58개 분야의 네덜란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2005년 8월말)를 통해 네덜란드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화학산업 부문으로 10점 만점에 8.21점을 획득하였으며 ICT 분야가 8.09점, 기계산업이 7.79점 등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축산분야 및 소매판매업 분야로 각각 5.10점과 부문으로 4.68점을 획득하여 네덜란드 중소기업 분야중 가장 비혁신적인 산업분야인 것으로 동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 EI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화학산업분야중 특히 페인트, 접착제, 향수, 고무밴드 등이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고 분석했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상기 분야들이 중국, 동남아 국가등 저임금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미 사양화 되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업들의 전략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지향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물류시스템과 서비스 도입, 친환경적인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최고수준의 중소기업들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 또한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중사기업들이 매출규모의 80% 이상을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내수산업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왔다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으로 들고 있다.
- 환경친화적 민-관 협력프로그램 'The Responsible Care Program'
- 1993 년 네덜란드 정부 및 화학산업 관련업계는 환경문제가 2000 년대에 더욱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을 감지하여 정부와 기업군과의 전격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화학산업 발전프로그램인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개발하게 되었다.
- 동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환경친화'에 있다고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화학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매 4 년마다 기업의 '환경 친화적 정책 계획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매년말 수행결과를 보고, 평가 받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약 10 년간 운영한 결과 네덜란드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가스(SO2), 산화질소(NOx),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농도가 약 50% 이상 감소되어 2010 년까지 목표한 달성가능 수치의 90%까지 근접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도 경쟁력 확보의 기반
- 화학산업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 프로그램의 수행과 더불어 기업이익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혁신적인 경영도입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 관련기업들은 90 년대 후반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평균 30%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저비용, 최대효용의 가치를 노사간 이견 없는 타협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생산/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 포트폴리오 경영방식채택 등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었다.
- 고객 마진보장으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화학산업 관련 기업들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기울였다.
- 우선 고객관리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바이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바이어들의 마진확대로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 또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소품종, 특정품목의 오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종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 및 관련기술의 교환 등 전반적인 네덜란드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 성장산업으로 확고한 위치 굳힐 듯
 -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불황기 속에서부터 운영되어온 환경친화적 민관협력프로그램이 금년도' 교토의정서 ' 발효에 따라 더더욱 빛을 발휘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이와 더불어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고객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기업들의 자구적인 발전방안들이 지난해부터 회복되고 있는 경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네덜란드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주력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9. 정보조사 자료원

가. On-Line 자료원

- EIM Knowledge Web : www.eim.net
 - 네덜란드 정부 국책연구기관으로 비즈니스 환경, 정책영향에 대한 뉴스, R&D 통계, 보고서 등 자료 제공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 : www.cpb.nl
 -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경제정책 자문 및 분석, 경제관련 통계자료 제공, 분기 보고서 등 제공
- 네덜란드 중앙통계청(CB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www.cbs.nl
 - 각종 통계수치 조사 및 발표
- CBI : www.cbi.nl
 - 개도국 지원을 위한 네덜란드 외교부 산하단체로 각종 EU 관련 정보 제공
- 네덜란드 대외무역청(EVD; Netherlands Foreign Trade Agency) : www.hollandtrade.com
-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 www.nfia.com
-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 www.dnb.nl
-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 www.minfin.nl
-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www.minez.nl
-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www.minbuza.nl
- Nederland Gaat Digitaal(네덜란드 디지털 정보화 사이트) : www.nederlandgaatdigitaal.nl
- 네덜란드 소매업 연합사이트 : www.hbd.nl
- 네덜란드 ICT 협회 : www.spinweb.nl
- 네덜란드 자동차협회 : www.bovag.nl
- 네덜란드 에너지관리위원회 : www.energiesaad.nl
- Expatica (일반 뉴스 정보) : www.expatica.nl

- Media Monitor (뉴스정보) : www.media-monitor.nl
- 네덜란드 뉴스 : www.netherlandsnews.net
- 국제교역 관련 정보 : www.internationaalondernemen.nl
- 바이오 산업정보 : www.hollandbiotechnology.nl
- 네덜란드 관세율 검색 : www.hollandbiotechnology.nl
- 네덜란드 기업검색 : <http://www.abcdirect.nl/>

나. Off-Line 자료원

- 신문
 - De Telegraaf : 네덜란드 최대 발행부수(78 만부)를 기록하고 있는 종합일간지
 - Het Financieele Dagblad : 경제 전문 일간지로서 발행부수 38 만부
 - Media Monitor : 경제 관련 전문 일간지
 - NIS New Bulletin : 경제 관련 전문 일간지
- 잡지
 - Consumentengids : 생활용품 관련 월간정보지
 - ERM : 네덜란드 가전제품 관련 전문 월간지
 - Bit&Chips : 컴퓨터, 하드웨어, 전자부품 관련 계간지 (연간 20 회 발행)
 - Quote&Media Marketing&Sales : Life Style 산업동향, 신제품 등 정보 제공 월간지
 - Fem Business : 네덜란드 경제 및 비즈니스 관련 주간지
 - BM : 네덜란드 전반적 산업 관련 월간지
- 기타정보지
 - Industriemonitor :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연간 발행하는 산업별 정보지
 - compendium : Het Financieele Dagblad 에서 연간발행하는 산업별 정보지

III. 경제무역통계

10. 거시경제통계

GDP 및 1인당 GDP

구분	2003		2004		2005(p)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GDP(십억유로, %)	476.3	-0.1	488.6	1.7	501.8	2.7
1인당 GDP(유로, %)	29,384	-0.8	30,039	1.4	30,728	2.3

자료원: EIU 'Country Profile 2005', 2005년은 EIU 추정치임.

경제성장률

구분	2003	2004	2005
GDP, Economic growth rate	-0.1	1.7%	0.9%

자료원: CPB 'Main Economic Indicators'

물가지수: 113.2 (2005년, 2000년 = 100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Consumer Price Index, rate	2.1%	1.2%	1.25%

자료원: CPB 'Main Economic Indicators'

이자율

구분	2003	2004	2005
Long-term interest rate	4.1%	4.1%	3.25%

자료원: CPB 'Main Economic Indicators'

실업률

구분	2003	2004	2005
Unemployment rate	5.3%	6.4%	6.25%
Number of unemployment	396천명	479천명	490천명

자료원: CPB 'Main Economic Indicators'

환율 (1유로 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미\$	0.8956	0.9456	1.1312	1.2439	1.2441
일Yen	108.68	118.06	130.97	134.44	136.85

자료원: DNB (De Nederlandsche Bank)

인구: 16,336,645명 (2006.6.14일 기준)

구분	내역	비고
성별	남자: 8,066천명 (49.47%) 여자: 8,240천명 (50.53%)	2005.9.30일 기준, 총인구 16,306천명, 외국인 699.4천명
연령별	20세 미만: 3,988천명 (24.46%) 20세-45세 미만: 5,776천명 (35.42%) 45세-65세 미만: 4,253천명 (26.08%) 65-80세 미만: 1,715천명 (10.52%) 80세 이상: 574천명 (3.52%)	
외국인	터키 100.6천명, 모로코 91.6천명, 독일 57.1천명, 영국 42.5천명, 벨기에 26.1천명, 이태리 18.4천명, 스페인 17.1천명, 미국 14.8천명, 전.유고 11.1천명, 기타 320.1천명	

자료원: CBS

수출입규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수출 (백만유로)	258,100	261,681	287,337	322,516
수입 (백만유로)	231,879	234,004	256,990	287,827
무역수지 (백만유로)	26,221	27,677	30,347	34,68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11. 무역통계

네덜란드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유로)

구 분	2003	2004	2005
수출	261,681	287,337	322,516
수입	234,004	256,990	287,827
무역수지	27,677	30,347	34,689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유로)

순위	국별	2003	2004	2005
1	독일	64,586	71,499	79,860
2	벨기에	31,933	34,320	39,472
3	프랑스	26,110	28,102	30,497
4	영국	25,780	28,927	29,616
5	이태리	15,444	17,010	18,122
6	미국	11,014	12,017	13,986
7	스페인	9,714	11,231	13,016
8	스웨덴	4,916	5,642	6,393
9	덴마크	3,429	3,843	4,914
10	러시아	2,813	3,364	4,416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유로)

순위	국별	2003	2004	2005
1	독일	41,356	45,830	48,242
2	벨기에	23,190	24,977	26,989
3	중국	14,646	18,985	25,860
4	미국	18,348	20,272	22,374
5	영국	16,669	16,277	16,778
6	프랑스	11,713	12,787	13,225
7	러시아	5,160	6,772	10,059
8	일본	8,534	9,382	9,261
9	이태리	5,968	6,088	6,563
10	대만	4,896	5,840	5,979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유로)

순위	품목별	2003	2004	2005
1	자동차료처리기기	17,288	19,658	20,722
2	석유 및 역청유	11,200	13,492	18,368
3	사무용기기 부품	7,345	7,683	10,962
4	전자직접회로	7,885	9,038	7,455
5	의약품	5,543	6,292	6,029
6	음성.영상재생기기	2,120	3,473	4,760
7	승용차	3,987	4,485	3,166
8	의료기기	3,003	3,273	3,154
9	사진현상실용 기기	1,754	2,819	2,814
10	트랙터	2,159	2,366	2,672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유로)

순위	품목별	2003	2004	2005
1	원유	13,995	16,261	22,583
2	자동차료처리기기	16,804	19,700	20,321
3	사무용기기부품	7,157	8,262	10,309
4	석유 및 역청유	5,208	6,489	8,693
5	승용차	8,340	8,641	7,743
6	의약품	5,024	6,294	6,695
7	전자직접회로	7,374	7,564	6,593
8	음성.영상재생기기	2,289	4,361	6,489
9	의료기기	2,815	2,767	2,801
10	자동차부품	2,520	2,612	2,56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6)

품목구분: HS 4단위

한-네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03		2004		2005		2006(1-6)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2,535	-1.2	3,007	18.6	3,647	21.3	1,540	-2.0
수입	1,382	19.3	1,729	26.0	2,760	59.6	1,387	-5.5
수지	1,153	-18.6	1,278	10.8	887	-30.6	153	+48.5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출품목 및 금액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5		2006(1-6)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총계	3,646,675	21.3	1,540,069	-2.0
1	승용차	475,547	21.8	245,959	-6.8
2	건설중장비	275,324	12.9	210,312	58.2
3	무선전화기	303,738	34.4	160,607	14.2
4	칼라TV	383,469	175.8	101,936	-35.4
5	타이어	77,503	33.4	66,083	151.1
6	컴퓨터부품	151,844	-5.2	55,723	-37.1
7	경유	425,249	1,526.4	43,735	-
8	자동차부품	64,777	16.5	43,250	32.4
9	보조기억장치	88,235	-70.3	40,348	-3.8
10	평판디스플레이	68,632	2,890.2	29,973	972.1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입품목 및 금액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5		2006(1-6)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총계	2,759,564	59.6	1,386,727	-5.5
1	반도체제조용장비	1,122,109	132.7	532,234	-23.4
2	직접회로 반도체	249,157	106.8	139,752	8.7
3	고철	65,465	3,690.0	43,090	9.1
4	선박	0	-	30,420	-
5	무선통신기기부품	23,692	-27.6	27,447	59.9
6	합성수지	47,843	14.1	25,030	13.3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51,572	36.5	24,774	-15.1
8	의료용기기	32,592	-16.4	24,152	47.1
9	소프트웨어	11,724	113.2	22,580	1,274.3
10	기타 정밀화학원료	39,701	33.1	22,126	11.6

자료원: KOTIS (2006)

품목구분: MTI 4단위

12. 투자통계

네덜란드의 투자수지 - Flows

(단위: 백만유로)

구 분	2003	2004	2005
해외투자유치	19,264	356	35,084
해외투자진출	-39,146	-13,918	-96,055

네덜란드의 연도별 국가별 투자유치 - Flows

(단위: 백만유로)

년도	2003	2004	2005
전체	19,264	356	35,084
벨기에	1,776	-417	3,439
독일	10,351	1,749	-390
프랑스	694	702	7,645
아일랜드	686	403	2,257
룩셈부르크	990	1,703	4,100
스페인	2,706	255	-278
영국	3,162	2,484	11,375
노르웨이	180	-145	1,109
스위스	420	1,912	-3,413
미국	-6,211	-7,701	2,977
일본	1,942	595	-130

네덜란드의 연도별 국가별 해외투자진출 - Flows

(단위: 백만유로)

년도	2003	2004	2005
전체	-39,146	-13,928	-96,055
벨기에	-715	222	-1,405
독일	-2,608	-1,097	1,536
프랑스	-1,793	799	-911
이태리	-3,684	-1,095	-2,051
룩셈부르크	642	-2,157	5,701
오스트리아	-1,967	-1,267	-1,172
스페인	-1,524	6	-6,029
영국	-5,064	-4,186	-80,477
스위스	-1,838	814	-2,560
러시아	-1,367	-2,202	-2,429
미국	-8,597	4,526	-2,026
대만	-165	-435	-3,352
일본	242	-278	254
홍콩	625	-119	656

투자통계 자료원: DNB (2006.6)

주: DNB 투자통계는 기업설립 및 M&A 관련된 지분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간 금융 거래 및 부동산매매 등을 포함한 금융거래를 모두 포함함.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유치 - 신고기준 (2006.6)

(단위: 건, 백만불)

2004		2005		2006(1-6)		누계(1962-2006.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	1,309	85	1,150	37	380	821	13,347

자료원: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동향” (2006.7)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진출 - 신고기준 (2006.6)

(단위: 건, 백만불)

2004		2005		2006(1-6)		누계(1962-2006.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4.2	11	40.9	1	26.0	88	2,744.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6.7)

한국의 대 네덜란드 산업별 투자진출 - 신고기준 (2006.6)

(단위: 건, 백만불)

산업별	건수	금액
광업	2	134.2
제조업	25	2,061.2
건설업	1	0.1
도소매업	37	302.8
운수창고	8	4.6
통신업	1	151.3
숙박음식점	1	0.1
서비스	13	89.8
누계(1962-2005)	88	2744.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6.7)

IV. 출장가이드**13. 출장가이드****1. 기후**

네덜란드는 북위 50-53도의 고위도에도 불구하고 북해연안에 인접해 있어 따뜻한 대서양 난류로 인해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하며 지역간의 온도차도 극소하여 동부와 서부간의 연평균 기온차는 2도 내외 안팎이다.

네덜란드의 연간강우량은 약 760mm, 눈 내리는 날은 연평균 17일 정도이다.

네덜란드 기후의 특징적인 사항은 일년 내내 건기가 없고, 봄철을 제외하고는 다소 강수량 많은 편이며 특히, 9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린다는 점이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18도 정도이나 아침은 선선하고 점심 때는 덥고, 저녁은 다시 선선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하며, 겨울철 평균기온은 8도로 온화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다 점을 염두에 두고 출장 복장을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 월별 평균기온 및 일조시간은 아래와 같다. (과거 30년 평균)

월	평균기온 (섭씨)	일조시간
1	2.1	44
2	2.3	65
3	4.7	111
4	7.8	161
5	11.9	206
6	15	209
7	16.5	189
8	16.5	184
9	14.2	140
10	10.2	110
11	6	51
12	3.3	38

2. 시차/근무시간

가. 시 차

한국시간 보다는 8시간 (하절기 섬머타임 실시에는 7시간)이 늦어 한국이 21시일 경우 네덜란드는 동일 13시(하절기는 12시)이다.

섬머타임 실시기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후 4시(섬머타임중)/5시(섬머타임 이후)이후에 네덜란드에 전화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적당하다.

나. 근무시간

근로자의 법정최고 근무시간은 45시간이나 매년 개최되는 노사간 포괄협상을 통해 현재는 주 38-40시간 근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 36시간 근무업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노조의 경우 32시간제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중소기업연맹(MKB) 등 기업측 입장에서는 네덜란드가 근무시간이 EU 내에서도 작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 일반사무실(은행 및 우체국포함)의 경우 08:30에서 16:30까지 또는 09:00에서 17:00 시까지 근무하며, 주 5일 근무제가 가장 보편적이거나 은행의 경우 금요일 오후 격주 휴무제가 노사간 합의로 '9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당수이다.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의 미팅은 금요일이 적합하지 않다. 휴일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금요일을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상점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10:00부터 18:00까지 주말(토요일)에는 17:00까지만 영업한다.

일요일은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의 대도시의 일부 쇼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점한다.

다. 대부분의 상점들 문여는 시간

- 월: 13-18 시 (백화점 11-18 시)
- 화-금: 9-18 시: 하지만 목, 금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21 시까지 문을 여는 상점이 확대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종종 일요일에도 문을 옴.

라. 은행

- 월: 13-16 시
- 화-금: 9-16 시
- 토.일은 영업을 하지 않음.

3. 도량형

네덜란드의 도량형은 한국과 같은 미터법 및 그램을 사용한다.

4. 출입국/비자

가. 비 자

1) 3개월 이내의 단기 출장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된다.

2) 장기파견근무

현지 발령 또는 이주 확정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MVV(임시체제비자의 일종)를 신청해야 한다. MVV 신청서류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총 10가지 내외의 서류를 구비하고 필요한 서류에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MVV 취득에는 총 1-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모든 비EU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허가서(Working Permit)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MVV가 발급되므로 근로허가서를 네덜란드에서 근무할 직장의 고용주를 통해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통상 근로허가서 취득 절차와 MVV 신청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 * 근로허가서 발급은 노동청 양식 AV320 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득증명, 파견자와 본사간 근로계약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여권사본, MVV 신청서 사본,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증 초본, 일정기간 경과 후 귀국할 것이라는 보증서 등의 서류가 요구되며 동 과정 또한 지사 또는 법인설립을 대행한 네덜란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MVV 및 비자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에 신청(신청서류는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수령) → 네덜란드
외무성 → 네덜란드 이민국 → 네덜란드 내 미래거주지 외사 경찰국 → 네덜란드이민국 →
네덜란드외무성 → 한국 주재 네덜란드대사관 → MVV 발급 (2005년부터 외사경찰국업무가
이민국으로 이전) → MVV 발급 후 일주일 내 비자발급

3) 거주허가 신청

MVV를 취득한 외국인인은 네덜란드 도착 후 3일 이내에 입국한 가족 동반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시청직원 파견근무)에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IND(네덜란드 이민성) 인터뷰,
관할시청 거주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여권사진 2매, 보험증, 고용계약서 집 계약서
등(단 가족 동반시 결혼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 확인증이 추가 필요)의 서류를
구비한 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카테고리 B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거주 신청금(일종의 비자수수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약간의 요율 변경이 있음)

* 거주신청금: 본인 EUR 258, 12세 이상 동반가족 EUR 258, 12세 미만 동반 가족 EUR 169

신분증(거주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유효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1년).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갱신 시에는 사진 2매와 구신분증, 기타서류(신청서,
급여명세서 등)를 IND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소재지 보건소에서는 우리나라의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폐결핵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첫 1년간 총 3차례의 X-Ray 촬영
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한국에서 가지고 와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이
안될 경우 다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필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의 행정절차는 매우 복잡
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므로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기다려
야 한다.

* 고급기술인력(Highly Skilled Immigrants) 신속 체류허가 발급제도

2004년 10월 1일부로 적용하는 제도로 연봉 45,000유로(30세 이하는 32,600유로) 이상인 근로
자(종교인, 윤락종사자, 프로축구선수 제외)는 고용주가 IND와 직접 협정을 체결하거나 신고
서를 제출함으로써 work permit 신청이 생략 되고 2주 내에 residence permit 발급됨.

※ 비자 발급처

- 주한화란대사관
 - 주소 : 종로구 종로 1가 1 교보빌딩 14층
 - 전화:02)737-9514
 - 휴일 : 토,일요일 및 양국 공휴일
 - 비자신청 및 발급: 09:00-12:30, 13:45-17:30

나. 출입국 절차

1) EU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입국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검사는 없으며 예방접종 또한 필요 없다. 입국시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SAMPLE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개인소지품의 양은 다음과 같으며 반출에는 제한이 없다.

- * 담배: 200 개피, 시가: 100 개피, 소형시가: 200 개피, 잎담배: 500 g, 술(22 도 이상): 1 리터, 술(22 도 이하): 2 리터, 샴페인류: 2 리터, 와인: 2 리터, 기타주류: 2 리터, 향수: 50 g, 오데코롱: 1/4 리터, 커피: 500 g, 커피원액: 200 g, 홍차: 100 g

가끔 상기 이상의 수량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EU국가 내의 여행

물건의 반입에 제한이 없다. 물론 주류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담배의 경우는 이 규정에 예외로 적용된다.

여기서 EU 국가라 함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이 해당되며 카나리 군도(Canary Islands)와 영국해협 의 군도(British Channel Isles)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

EU국 국민이 아니면서 물건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되며, 스키폴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ABN AMRO은행과 GWK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구입물품, 영수증, 부가가치세 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5. 환율/환전

1) 환율

네덜란드가 2002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 통화는 유로화이며 2006년 8월 24일 기준 유로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 1Eur = 1,226.05 원
- 1Eur = 1.2830 USD

2) 환전

네덜란드 내에서 환전은 은행, 환전소, 호텔 등에서 가능하나 환전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 은행: 3-4%
- 환전소: 3-6% (공항 내 환전소는 수수료 저렴 2.5-3%)
- 호텔: 6-11%

6. 물가정보

□ 도시: 암스텔담(네덜란드)			- 환율: US\$1 = € 1.180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648.3	7.1	구두(1켤레, 소가죽)	360.7
1.2	넥타이(1개, 실크100%)	69.7	7.2	치약(150g, 1개)	4.5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87.3	7.3	칫솔(1개)	3.6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27.2	7.4	면도기(1세트)	11.8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529.3	7.5	건전지(1세트, 1.5V AA)	8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27.2	7.6	화장지(1통, 300매)	2
1.7	청바지(Levi's)	177.1	7.7	비누(1개)	1.7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2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9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7.7	8.2	볼펜(12개)	7.1
2.3	닭고기(1KG, 생닭)	8.3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1
2.4	쌀(1KG, Short Grain)	2.7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3
2.5	밀가루(1KG)	1.2	8.5	휴대폰(범용형)	329.5
2.6	설탕(1KG, 백설탕)	1.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9.5
2.7	계란(10개)	1.8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82.7
2.8	감자(1KG, 현지산)	1.2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2.5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8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5,427
3.1	고추장(1Kg)	7.1	9.2	엔진오일(1L)	3
3.2	된장(1Kg)	5.3	9.3	휘발유(1L)	1.7
3.3	라면(1개)	0.8	9.4	자동차등록비(2,000cc)	없음
3.4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 등)	16.5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708.5
3.5	불고기(1인분, 200g)	18.9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23.6	10.1	지하철(1구간)	1.9
3.7	김치찌개(1인분)	16.5	10.2	시내버스(1구간)	1.9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4.7
4.1	햄버거(1개)	3.5	10.4	택시(추가요금/Km)	2.4
4.2	피자(1판)	20.7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7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53.1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7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1.3
4.5	담배(수입산, 1갑)	4.7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2

4.6	위스키(1병, 750ml)	46.1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1.2
4.7	커피(1병, 175g)	3.5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2.4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5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4,133.2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8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952.3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118.1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3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2
6.1	TV(29인치, LG 브라운관 TV)	708.5			
6.2	VTR(6헤드, 범용)	없음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58.6			
6.4	전자레인지	77.9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770.2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2,125.6			

□ 도시: 암스텔담(네덜란드)			- 환율 : US\$1 = € 1.180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8개교	18.1	법정최저임금 (월 급여)	1,492.7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3,452.7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6%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6,999.1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9,626.6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6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0,423.7	18.6	연간국경일	8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70.9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542.7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38시간
13.3	골프공(1타)	41.3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72.4	19.1	법정최저자금	2,125.6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0.1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30.7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0.6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30%~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7,675.9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31.9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전액환급			
14.4	치과(스켈링, 1회)	41.3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3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8.5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6.9			
15.4	잡지(1부, Time)	4.9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13.3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36.2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88.9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9.6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5.4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3.6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2,952.3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2,007.5			

7. 교통/통신

가. 교통

시내 대중교통 수단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Metro)과 경전철(Tram)을 이용할 수 있다.

1) 택시

공항, 대형호텔, 역, 기타 지정택시 승강장에서는 주차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화로 호출을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Call Taxi는 Taxicentrale (020 6777777 - 전화번호)이다.

- 택시 요금은 한국에 비하면 다소 비싼 편으로 기본요금은 2.90 유로이다.
- 참고로 공항(Schiphol)에서 무역관이 위치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남부지역 (Strawinskylaan 767)까지 편도 약 30 유로 정도가 소요됨(11km)

2) 버스, 지하철, 경전철

연계권으로 공동사용 하는데, 승차권은 차량내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혹은 운전자가 직판)를 이용하거나, 3-4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우체국 등 지정판매소에서 15구간용(EUR

6.20), 혹은 45구간용(EUR 18.30)을 구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다. Strippen kaarten라 불리우는 이 승차권은 우체국, 담배 판매점, 기타 잡화점, 일부 슈퍼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교통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전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동일 구역 내에서는 버스, 전철, 경전철에서 같은 승차권 이용이 가능하다. 승차권을 사용할 때는 "구역 +1" 을 적용하여 즉, 목적지까지가 3구역일 경우 3+1 즉, 4칸에 해당되는 표를 구입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방법은 차량 내 검인기계(노란색 기계)에 승차권을 넣게 되면 검인된다.

3) 기차

시외 교통수단으로는 기차가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하며 편리하다.

네덜란드철도청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ns.nl을 이용하면 네덜란드 국내선 및 국제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나. 통 신

1) 시내전화

유로 동전이나 전화카드 이용 가능하나 시내에 공중전화기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시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로밍해 오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제전화

동전이나 카드이용은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동일함. 다만, 먼저 국제전화 인식번호를 누른 후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하면 된다.

- (예; 네덜란드에서 서울로 전화할 때) 00(국제번호)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 (예: 서울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전화할 때) 001(국제번호) - 31(네덜란드) - 20(암스테르담) - 전화번호

참고로 호텔 객실 내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 상당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네덜란드내 대부분의 호텔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www.hoteln.net.nl 혹은 www.bookings.nl

아울러 지역별 추천 호텔은 다음과 같다.

1) 스키폴공항 지역

- Sheraton Schiphol(5 star): 전화 020 316 4300
- Hilton Schiphol(5 star): 전화 020 710 4000
- Golden Tulip Schiphol: 전화 020 655 0550

2) 암스테르담

- Hilton Amsterdam(5star): 전화 020 678 0780
- Okura (5star): 전화 020 678 7111
- Le Merdien Apollo: 전화 020 673 5922
- Novotel: 전화 020 541 1123 -> 비즈니스 출장 시 적합
- Holiday Inn Amsterdam: 전화 020 646 2300 -> Novotel 호텔과 더불어 비즈니스 출장 시 이용하기 적합한 호텔
- Memphis: 전화 020 673 3141
- Mercure: 전화 020 665 8181

3) 헤이그

- Crowne Plaza Den Haag Promande: 전화 070 352 5161
- Golden Tulip Hotel Corona: 전화 070 367 930
- Mercure Den Haag Central: 전화 070 363 6700
- Hotel Sofitel Den Haag: 전화 070 381 4901

4) 로테르담

- Rotterdam Art Hotel: 전화 010 279 4111
- Rotterdam Airport Hotel: 전화 010 462 5566
- Hotel Novotel Rotterdam/Schiedam: 전화 010 453 9777
- Hotel Inntel Centre: 전화 010 413 4139

나. 식당

- 한국관 (Korea)
 - Van Boshuizenstr.207, 1083 AW, Amsterdam
 - Tel: 020-644 5273 Fax: 020-453 2058
- 미 가 (Mika)
 - Buitenveldertselaan 158A, 1081 AB, Amsterdam
 - Tel: 020-661 4077 Fax: 020-661 2792
- 칸 (Khan)
 - Nederhoven 9, 1083 AM Amsterdam
 - Tel : 020-646 3722 Fax : 020-646 3795

- 화 원 (Hwa Won)
 - Nederhoven 13/15, 1083 AM Amsterdam
 - Tel: 020-64 23142 FAX: 020-645 6995
- 우리강산
 - Rijnlanderweg 1300, 2153 KD, Nieuw-Vennep
 - Tel: 0252-689 249 Fax: 020-642 2595
- 서울가든 (Seoul Garden)
 - Bagijnestraat 8, 2511 CK, Den Haag
 - Tel/Fax : 070-365 0625
- 아리랑 (Arirang)
 - Marnixstraat 198, 1016 TJ, Amsterdam
 - Tel: 020-620 0962 Fax: 020-427 0502
- 코리아나 (Koreana)
 - Westblaak 27, 3012 KD, Rotterdam
 - Tel: 010-404 9744 Fax: 010-412 0760
- 레스토랑 환 코리아
 - ZEESLUISWEG 6 : 2583 DR DEN HAAG (Scheveningen Haven)
 - Tel : 070-355 5227

* 참고로 한국식당은 김치찌개 기준 평균 점심이 15유로, 저녁이 17유로 정도이다.

9. 관공서 관행

네덜란드 관공서는 효율성이 여타 EU국가와 비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 관공서의 경우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Letter로 통보한다. 하지만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상호 협조처리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이 때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10. 공휴일

가. 개 요

네덜란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New Year's Day (신정) : 매년 1월 1일
- Queen's Birthday (여왕탄신일) : 매년 4월 30일
- Good Friday - Easter Monday (부활절 연휴)
- Ascension Day (예수 승천일)
- Christmas-Second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 매년 12월 25-26일

나. 2006년 공휴일 내역

공휴일	일자	참고사항
New Year's Day (신정)	1월 1일	
Easter (부활절)	4월 15일~4월 17일	전후 1주일간 휴업업체 다수
Queen's Birthday(여왕생일)	4월 30일	
Ascension Day(예수승천일)	5월 25일	
Whit Monday(성령강림일)	6월 5일	
Christmas (성탄절)	12월 25~26일	공식휴일은 25~26일 이틀간이나 실제로는 24일부터 신년 첫째 주까지 휴가를 갖는 기업들이 많음

○ 기타 비즈니스 활동관련 유의기간

다. 기타 공휴일

상기 공식공휴일 이외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5.1을 노동절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 알크마르, 잔담 등 자체결정에 의해 공무원들만 공휴일로 하며 관계 업체들 휴무사례도 많다.

라. 휴가기간

네덜란드인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기간이 긴 편이다.

법정 공식휴가일수가 최저 20일(Working Day 기준)로 거의 한달 정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휴가가 7~8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에 방문 약속이 잡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 중 현지방문 상담은 피하는 것이 좋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 네덜란드 여행시 주의할 점은 기타 해외지역과 크게 다를 바는 없으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내 다운타운을 관광할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이들 소매치기는 주로 중동, 아프리카 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대부분 단체로 행동하고 있다. 특히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동양인 들을 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길을 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특히 최근에는 중앙역, 박물관,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소매치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강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옷에 이 물질을 묻힌 후 죄송하다고 한 후, 인근 화장실로 유인한 후 금품을 뺏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능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함.)

- 또한 사복경찰을 사칭하는 2 인조 강도가 마약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및 지갑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주의가 가끔 발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위조화폐 검사를 한다고 다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여행경비는 가급적 여행자수표로 준비하고 현금을 소지할 경우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비행티켓이나 여권은 숙소에 보관하고 사진기나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귀중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 현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도 어두운 골목이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현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다.
- 기타 관광정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안내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VW)에 문의하거나, 현지인들의 영어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비상 연락처

네덜란드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은 아래와 같다.

- 네덜란드주재 한국대사관: 070-358-6076
- 암스테르담무역관: 020 673-0555
- 외환은행 암스테르담지점: 02-546-9331
- 경찰: 112 (범죄신고 및 응급차 요청 시)
- 화재시: 112
- 앰블런스 요청: 112
- 긴급의사 문의: 3455300
- 야간약국: 일간지 또는 각 약국문에 안내문
- 물건분실 센터: 3619669

※ 참고사항 : 약국- APOTHEEK, 병원 - ZIEKENHUIS로 표기됨

나. 여행필요 연락처

- 전화번호 문의: 0900 8008 (국내), 0900 8418 (국제)
- 네덜란드 철도청: 0900 9296
- 대중교통 안내: 0900 9292
- 교통상황 안내: 0900 9622 (국내)
- 스키폴 국제공항: 0900 0141
- ANWB 여행 안내: 0900 910 910 1

다. 기타 연락처 (암스텔담)

- 대량 팩스 발송
- 네덜란드 대량 팩스발송 서비스 www.informaxion.nl

- E-Mail: b.smit@informaxion.nl
- 금액 0.115 유로/장
- 전화: 023-554-6777 팩스: 023-5546-726

- 꽃 배달 서비스
 - Flower Time 전화: 020-421-0993 팩스: 020-422-1853
 - 가격대는 25 유로는 보통, 50 유로는 풍성하다고 생각될 정도, 70 유로는 매우 큼 (특급 호텔의 카운터에서도 50 유로면 크다고 함) (운송료포함) (월~금 9:00~17:00 까지)

- 전화번호부: www.telefoodgids.nl
 - 네덜란드 최대 통신기업인 KPN 이 운영하는 전화번호부 검색서비스로 우리의 hanmir 전화 검색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검색 예 Naam(name): korea trade center Woonplaats (Place): Amsterdam) zoeken(search)를 치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옴)

- 피자배달서비스
 - Pronto Italia 020-661-3500(암스테르담) 피자 8~9 유로선, 샐러드 3.5 유로선
 - 맥주, 콜라 1.4 유로선에 배달
 - www.prontoitalia.thuisbezorgd.nl 에서 배달가능시간 확인

- 중국식
 - Ruby Express 020-644-6489
 - 1 인의 경우 대략 12-15 유로선

- 지도구입: <http://www.strassenbuch.com/>
 - 전화: 31(0)455676030

- 음악관련 사이트
 - Concertgebouw 각종 교향악단 등의 행사 <http://www.concertgebouw.nl>
 - 뮤지컬 관련정보 (<http://www.musicals.nl>)
 - 티켓팅(<http://www.topticketline.nl/>)

13. 관광명소

가. 암스테르담

1) Rijksmuseum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 15~19 세기 네덜란드의 미술품, 선사시대 이후 네덜란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렘브란트의 "Night Watch"(야경꾼)이 전시된 네덜란드 최대의 국립박물관
- 홈페이지 : www.rijksmuseum.nl

2) Van Gogh Museum (반고흐 박물관)

- 유화작품 200 여점, 데생 500 여점 및 편지 700 여 개를 전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고흐 소장품 미술관으로 반고흐 작품 이외에 기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

- 개장시간 : 매일 오전 10 시~오후 18:00(매표소 17:30 까지)
- 안내전화 : +31 (0)20 570 5252
- 홈페이지 : www.vangoghmuseum.nl

3) Anne Frank House (안네 프랑크의 집)

- 2 차 세계대전 중인 1942 년부터 1944 년까지 유대인소녀 안네 프랑크 일가가 독일 나찌 군의 만행을 피해 은둔했던 장소
- 개장시간 : 매일 오전 9 시~오후 7 시, 4 월 1 일~9 월 1 일까지는 오전 9 시~오후 9 시, 1 월 1 일과 12 월 25 일은 오후 12 시~5 시
- 홈페이지 : www.annefrankhuis.nl

4) Damrak (담광장)

- 암스테르담의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광장 주위에 구 왕궁 및 2 차 대전 위령비가 소재해 있음. 이 곳에서부터 Kalverstraat 까지 이어지는 쇼핑거리가 유명하며 Magma Plaza 등 유명백화점들도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5) 기타

- 운하관광: 관광유람선을 이용, 암스테르담의 주요 운하를 따라 운행. 약 1 시간여 소요.
- 다이아몬드 커팅센터: Coster Diamond 및 Gassan 등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다이아몬드 커팅 시범을 보여주며, 한국인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구매도 가능함 (반고흐 박물관 맞은편에 위치)

나. 헤이그

1) Madurodam (마두로담)

- 암스테르담의 옛 건물, 알크마르의 치즈시장 및 델타프로젝트 등 네덜란드의 명소들을 1:25 로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공원
- 개장시간 : 오전 9 시~오후 5 시 www.madurodam.nl

2) Binnenhof (비넨호프)

- 13 세기 고딕양식의 궁으로 영주의 성으로 사용되어지다가 현재는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3) Peace Palace (평화궁)

- 국제사법재판소 건물
- 홈페이지 : www.peacepalace.nl/

4) Yi Jun Peace Museum (이준 열사 기념관)

- 1907 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 2 회 만국평화회의의 사절단으로 참석했다 순국하신 이준 열사 박물관으로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헌화용 꽃 준비필수

5) Scheveningen (스헤브닝혼 해변)

- 네덜란드 최대의 해변으로 연중 내내 해외 및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 및 식당가가 준비해 있음.

다. 기타 지역

1) 로테르담항

- 세계 최대 화물처리항구로서 Europort 라고도 불리운다. Speedo(괘속유람선)를 이용 관광가능

2) Afsluitdijk (북해댐)

- 북해를 가로질러 Noor-Holland(북홀랜드 주)와 Friesland (프리슬란드 주)를 잇는 총 33km의 거대한 제방

3) Zaanse Schans (풍차마을)

- 네덜란드 전역에 분포되어 있던 각종 옛 풍차들(종이 및 기름제조 등)을 옮겨 재조립하여 관광지로 조성한 민속촌으로서 현재도 주민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고 있음. 민속촌 내에 나막신과 치즈제조 공장 및 상점이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zaanseschans.nl>

4) Keukenhof (케uken호프)

- 세계최대의 튜울립 공원으로 매년 튜울립이 피는 3월말에서 5월 중순까지 개장
- 개장시간 :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 전화 : +31 (0)252 465 555
- 홈페이지 : www.keukenhof.nl

5) Aalsmeer Flower Auction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 세계 최대의 화훼경매장으로 일반인들도 경매관람이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vba-aalsmeer.nl/english/>

6) Volendam (볼렌담)과 Marken (마르켄섬)

-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어촌 민속마을로 목조형 가옥이 아름다움.

7) Delta Expo

- 네덜란드 남부 Zeeland(제이란드주)에 위치한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방조제로 유명

8) Delft (델프트)

- 네덜란드의 특산품 중 하나인 Dekftblauw(청색도자기)의 고향으로 TU Delft (델프트공대)가 소재한 곳

9) 알크마르 옆의 작은 마을 Schoorl

- 치즈시장이 열리는 알크마르 부근의 Schoorl 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고 조용한 아름다운 마을이며 마을 자체는 아주 작기 때문에 숙박 및 관광시설, 거리의 카페 및 교회 등도 모두 아기자기해서 네덜란드 특유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다.
- Schoorl 관광안내소(VVV Schoorl - Groet - Camperduin)
- Tel: 072 - 5091504 <http://www.schoorl.info/>

10) 국립공원 De Hoge Veluwe

- 5 천 헥타아르에 달하는 네덜란드 최대의 자연보호 국립공원으로 600 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음.
- 입장료는 공원입장만 아동 6~12 세까지 2,50 유로, 어른 5, 공원과 미술관입장 포함은 아동 5, 어른 10 임
- 개장시간은 오전 8 시부터, 폐장은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 4 월과 9 월은 오후 8 시, 5 월과 8 월은 9 시, 6~7 월은 10 시, 10 월은 7 시, 11 월부터 3 월까지는 9 시 개장, 오후 5 시 30 분 폐장
- Het Nationale Park De Hoge Veluwe 는 Arnhem, Ede 그리고 Apeldoorn 사이에 위치, 공원입구는 Hoenderloo, Otterloo, Schaarsbergen 에 있음
- 전화: 0900 46 43 835 <http://veluwe.businessmedia.nl>

11) Texel

-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인상적임
- 네덜란드 북서쪽 위치한 Den Helder 에서 매시간 운행하는 페리 이용
- 전화: 0222-369691/369692 www.teso.nl
- Texel 관광안내소(Emmalaan 66, Den Burg)
- 전화: 0222 314741, www.texel.net

12) Kinderdijk (전통 풍차마을)

- 1997 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관광지로 네덜란드내에서 유일하게 10 개 이상의 전통 풍차를 보존. (총 24 개의 풍차)
- 로테르담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함.

V. 무역

14. 교역관련 주요법규

네덜란드는 자체적인 대외교역 관련 법규를 운영하지 않으며 단일시장인 EU통일지침에 따르고 있다. EU의 대외교역 관련 법규는 방대하고 종류도 많으나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주요 EU법규만 간단히 소개한다.

가. EU import regime

1) Common rules for import

- 근거규정: Council Regulation(EC) No 3285/94 of 22 December 1994 on the common rules for imports
- 주요내용: 석유류를 제외한 비 EU 산 제품의 수입에 관한 일반규정. 단, Albania, CIS, North Korea, China, Mongolia, Vietnam 의 경우 동 규정 미 적용하며, EC Regulation No 519/94 을 적용

2) Rules for imports from certain third countries

- 근거규정: Council Regulation(EC) No 519/94 of March 1994 on common rules for imports from certain third countries
- 주요내용: 전.공산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었으나 자유화 이후 규정개정 중이나 현재까지 기본적인 사항은 적용. 동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대부분 자유화 되었으며 긴급조치권이나 대중국 수입쿼터의 적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수량 제한을 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3) Community procedure for administering quantitative quotas

- 근거규정: Council Regulation(EC) No 520/94 of 7 March 1994 establishing a Community procedure for administering quantitative quotas
- 주요내용: EU 가 설정한 특정기간중의 수출입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Annex II 에 규정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기타 특별히 정한 수입쿼터 관련 규정 적용대상품목에는 미적용

4) Autonomous tariff suspensions and quotas

- 근거규정: Commission Communication No 98/C128/02 of July 1998 concerning autonomous tariff suspensions and quotas
- 주요내용: EU 공통 수입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 보류 (suspension) 또는 수입쿼터를 발효시키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

나. EU export regime

1) Common rules for export

- 근거규정: Council Regulation(EEC) No 2603/69 of 20 December 1969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exports
- 주요내용: EU 에서 비 EU 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하는 일반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출품 및 수출품목의 제한이 없으며 자유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회원국의 자체적인 수출 수량 제한이나 금지를 제도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2) Export credit and credit-insurance

- 근거규정: Council Directive 98/29/EC of 7 May 1998 on harmonization of the main provisions concerning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ransactions with medium and long-term cover
- 주요내용: EU 국가내 수출신용보험 제도의 보증방법, 보험료, 보상정책 등을 통일함으로 수출신용보험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

3) Control of exports of dual use goods and technology

- 근거규정: Council Regulation(EC) No 1334/2000 of 22 June 2000 setting up a Community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of dual-use items and technology
- 주요내용: 민간용 및 군사용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규정하며, 해당 품목내역은 Euro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Export of cultural goods

- 근거규정: Council Regulation(EEC) No 3991/92 of 9 December 1992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 주요내용: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 특히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발굴품 또는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가 높은 물건 등에 대한 수출제한을 규정. 수출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목록은 Euro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 Europa - The portal site of EU (<http://europa.eu.int>))

15. 수입규제제도

네덜란드의 대외통상정책은 전적으로 EU의 통일지침에 따르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장벽은 없다. 유럽의 물류허브로서 네덜란드는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재수출로 연결되어 수입, 수출 모두를 장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입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회원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일부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또는 육류,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장관 허가: 농수산물 수입령이 정한 가축, 육류, 과일, 낙농제품
- 경제성 장관 허가: 공산품 수입령이 정한 석탄, 철강, 석유류 등
- 관계부처 장관 허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및 원산지 불명의 제품

★ 참고사이트: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

16.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요

네덜란드는 1968년 7월 이후부터 EU회원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현재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EU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매년 관세율표를 제정, 공표한다.

관세분류체계는 HS분류체계를 기초로 1988년 8월 1일부터 EU 통합분류(C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CIF 가격에 의한 종가세이나, 일부의 경우 종량제도 적용된다.

나. 관세 체계

기본적인 EU의 관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 EU 회원국: 무관세
- 특혜관세: 협정 체결국 및 지중해 연안국에 대해 품목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
- 일반특혜관세: 개도국 공산품에 적용
- 일반관세: 역외국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

17. 주요인증제도

가. 네덜란드 인증제도 개요

네덜란드시장은 EU통일인증마크인 CE Marking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관리하는 인증은 'KEMA-KEUR' 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내에서는 94%가 인지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나. KEMA-KEUR 인증제도

동 인증은 네덜란드 KEMA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도에 국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동 인증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가능하며, KEMA 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동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종의 제품은 동 인증도 취득한 바 있다.

동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제품 생산공장 및 해당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정기검사에도 수천 유로가 소요된다.

다. 네덜란드 인증 관련기관

○ KEMA Corporate

- P.O.Box 9035, 6800 ET Arnhem, The Netherlands
- Tel: +31 (0)26 356 9111
- Fax: +31 (0)26 389 2477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KEMA-KEUR 인증기관

○ Dutch Standardization Institute (NEN)

- P.O.Box 5059, 2600 GB Delft, The Netherlands
- Tel: +31 (0)15 269 0390
- Fax: +31 (0)15 269 0190
- Email: info@nen.nl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네덜란드 국가표준원으로서 네덜란드 및 EU 표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

18. 지적재산권

가. 특허권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은 1995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특허는 산업 재산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Rijswijk 소재 Bureau voor de Industriële Eigendom).

네덜란드의 특허법은 장기보호와 단기보호로 나누어지며 장기보호는 광범위한 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데 20년간 보호되며 단기보호는 6년간 보호된다. 특허 요건중의 하나인 참신성(novelty)에 관한 조사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는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공익에 필요하다거나 특허부여 후 3년 이내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출원자에게 라이선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후특허출원자가 선행특허출원자의 원천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나 중요한 신기술일 경우에는 라이선싱을 부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파리협약(1975), 유럽특허협약(1973), 특허협력협정(1970), 스트라스부르그협정(1963)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럽공동체 특허협약에도 1989년도에 참가하였다.

유럽공동체 특허는 원헨 또는 하부기관이 있는 Rijswijk에서 등록할 수 있다.

- European Patent Office
- Add: Patentlaan 2, 2280 HV Rijswijk
- Tel: +31(0)70-3402040
- Fax: +31 (0)70-3403016
- Homepage: www.european-patent-office.org/

나. 상표권

1) 상표권 제도 개요

1971년 베네룩스 3국은 공동으로 상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EU 지침에 따라, 상표규정에 맞춰 네덜란드 규정을 개정하였다(EC Directive 89/104, 1998년 12월 21일).

상표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헤이그에 있는 베네룩스 상표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The Benelux Trademarks Office
- Add: Bordewijklaan 15, 2591 XR Den Haag
- Tel: +31 (0)70-3491111
- Fax: +31 (0)70-3475708
- Homepage: www.bmb-bbm.org/gb/pages/index.htm

마드리드협약 회원국으로 동 회원국에 일괄 상표등록을 할 경우 이 시스템에 따라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나 특정 1개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무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상표등록방법 및 절차

개인, 회사, Organization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Formulier voor het Benelux-Depot van een merk", 소위 A-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는 브랜드가 레터로 구성되어있는 경우는 브랜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브랜드가 레터와 로고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10개의 흑백사진을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 제출 이전에 등록할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준비조사를 위해서는 "Verzoek betreffende onderzoek naar eerdere inschrijving" 소위 B-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The Benelux Trade Mark Office는 B-form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상표나 로고가 중복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등록 신청자나 기관은 Benelux Merken Bureau로부터 등록상표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며 만약 등록 상표나 로고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자가 원할 경우 BMB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에 통보가 되며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상표나 로고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추진할 경우 이미 등록된 기관이나 회사, 또는 개인이 지적소유권을 발효하여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 기간으로는 제출한 날짜로부터 약 6내지 7개월이 소요되나 등록 신청자가 'Fast Search' (비용은 별도)를 택할 경우 6주 정도가 소요된다.

유효기간, 등록상표 개정 및 취소와 관련,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으로는 신청허가 날짜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등록상표 개정은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취득 후 향후 3년간 또는 5년간 등록상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후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표등록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상표가 사용되었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별 케이스로 등록상표 취득에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등록상표권을 발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와의 법적인 시비는 불가피하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외국업체인 경우 Benelux 3국의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하여 등록 상표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은 자국에서 세계 각국의 상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독특하며, 개성이 포함됨(original and personal character)'을 원칙으로 한다.

베른협약(1886), 국제저작권협약(1952)에 가입되었으며, 1912년 네덜란드 법으로도 보호 받는다. (Auteurswet 1912)

서적, 영화 등의 보호기간은 사후 70년간이며, 음반은 50년이다.

라. 저작인접권

네덜란드는 1993년 저작인접권법(Wet op de naburige rechten)을 제정하여, 예술가, 프로듀서, 음반업자, 방송국 등은 저작권과 관련한(저작권을 이용한 새로운 편성 등) 인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별도 등록은 불필요하며 공연 등이 이루어진 후의 다음해 1월부터 50년간 보호된다.

19. 소비자보호제도

네덜란드 법령에 의한 소비자보호제도는 크게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과 소비자 보호법(Consumer Credit Law)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제조물책임법 (PL)

네덜란드의 PL 관련법은 1985년의 EU 공동지침(85 / 374 / EEG)에 기초하여 1990. 11. 1일에 발효되었다.

소비자는 구입한 물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증명 없이 제소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하자상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브랜드 소유업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란 하자상품을 만든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원자재 공급업체까지 포함되며 역내 생산업체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최초로 EU에 수입한 업체를 지칭하며 브랜드 보유업자는 자사 이름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로 간주한다.

손해배상 청구요청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은 다음 6가지의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 받는다.

- 관련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았을 경우
- 생산 당시 과학 및 기술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었던 제품
- 법규정 준수에 따라 발생한 하자
- 유통업자의 취급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 판촉 또는 샘플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판매상품인 경우
- 최종 생산자의 주문에 의해 부품을 조달한 부품업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피해를 입은 후 3년 이내이며, 물품공급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배상한도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사망, 부상 또는 약 미\$ 632 이상의 물질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자상품은 품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가량의 품질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한 소매점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은 원만히 해결되는 편이다.

네덜란드의 PL 관련 주관부처는 법무부 민사법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 Ministry of Justice, Sector Privaatrecht (Private Law)
- Add: P.O.Box 20301, 2500 EH Den Haag
- Tel: +31-70-370-6900
- Fax: +31-70-370-7932

나. 소비자보호법

상법상 PL 법 이외에 Wet op Het Consumenten Krediet (Consumer Credit Law; 1992.1.1)을 마련, 소비자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의무화
- 구매계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을 경우 구매계약 파기 가능
- 원산지명 표기
- 결함제품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20.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EVD - 무역진흥기관

- Add: Juliana van Stolberglaan 148, 2595 CL Den Haag, The Netherlands
- Tel: +31 70 778 8888
- Fax: +31 70 778 8889
- Website: <http://www.evd.nl>
- Remarks: 개도국과의 경험, 자국기업과 외국기업과의 무역 촉진을 위한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의 무역진흥기관

나.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 (KVK Amsterdam) - 상공회의소

- Add: De Ruy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0)20-5314000
- Fax: +31-(0)20-5314799
- Homepage: www.kvk.nl (신청절차 상세 안내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Remarks: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등록기관

다. Belastingdienst Amsterdam - 국세청

- Add: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0800-0543
- Fax: +31-(0)20-6877299
- Homepage: www.belastingdienst.nl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Remarks: 현지 지사 및 현지 법인에 대해 부가세번호 부여 국가기관

2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네덜란드는 2005년 기준 수입 규모로만 보면 2,878억 유로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라 할 수 있으나 이중 상당부분(공식집계는 하지 않지만 대략 60-70% 수준으로 추정)이 독일을 비롯한 인근국으로 재수출 물량이므로, 자국 제조업이 빈약한 네덜란드 자체의 시장규모는 교역액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가 교역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유럽대륙의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로 인해 교역물량을 처리하면서 생긴 조직화된 상거래기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덜란드를 유럽의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 네덜란드 수출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나. 경제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 협소한 국토면적 : EU 15 개국 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세계 8 위의 무역대국 (2005 년 기준 수출 3,225 억유로, 수입, 2,878 억유로)
 - 초대형 다국적기업 다수소재 : 세계 500 대 기업 중 16 개 기업보유 (유럽 500 대 기업 중 33 개 보유)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규모의 로테르담항 보유(유럽 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시장의 Test Market: 시장자유화로 국내외 기업간 치열한 경쟁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US\$ 45 억 (세계시장의 60% 공급)
 -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평평한 국토보유로 국토개발 활용률 100%에 육박
- 유럽의 경제발전 Model
 - Polder Model: 勞·使·政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사례
 -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척박한 국토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산업을 육성, 경제성장지속

다. 시장특성

1) 시장 및 무역활동의 완전개방

네덜란드에서는 무역이 생활영위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과 방편이 되어 온 관계로 보호 무역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생활터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까지 간주한다. 국내 산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산업만 특화하여 집중 발전시키고, 여타 분야는 외국기업에 과감하게 개방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민 역시 자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편 대다수의 네덜란드 수입상들은 역사적 유대감을 갖는 베네룩스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동구까지를 활동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지 수입상과의 확실한 관계 설정 여부는 현지 시장 및 유럽시장 진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2) 근검절약의 실용적 소비패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물에 젖은 휴지를 말리는 곳이 나타나면 그 곳이 네덜란드이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국민은 대개가 검소하다. 이 같은 국민성을 반영, 제품 구매시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3) Test Market

무역의 완전 개방화에 따라 시장진출은 용이한 반면, 세계 각국의 제품간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소비자의 까다로운 소비패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제품은 유럽지역의 진출이 보장되는 완전한 "Test Market"이다. 일본과 대만 역시 유럽진출 초기에는 자사제품의 소비자 반응과 시장동향을 분석한 곳이 네덜란드이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유럽시장에 최초 진출한 곳도 네덜란드다.

4) 유럽의 물류중심지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지리적 이점을 최대로 살려 유럽의 물류중심지로 발전하여 왔다.

반경 300 마일(일일 생활권)이내에 1억 6천만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특히,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유럽의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여 온 나라이다.

연간 화물처리 능력이 2억 9천만톤에 달하는 로테르담항은 뉴욕의 2배이자 함부르크, 브레멘, 안트워프, 르하버 등 인근 유럽 주요항구 처리능력에 상응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독일 루르공업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를 통해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이동 및 처리 면에서 유럽 물류센터에 각광 받고 있다

5) 세계 화훼교역의 메카

오늘날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화훼 공급국가로 자리잡았다. 절화(cut flower)의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59%에 이르고 있으며 분화(pot flower) 또한 48%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화훼산업의 오랜 전통, 자국 내 우수한 생산기반과 더불어 18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경매제도 덕택이다. '오전에 네덜란드 경매장에서 거래된 꽃이 당일 저녁 뉴욕의 상점에서 판매'될 정도로 네덜란드 화훼 경매장은 전세계 화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네덜란드 6대 경매장 중의 하나인 Aalsmeer 경매장에서는 매일 5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주 1,300개 이상의 도매업자와 수출업자들이 6,900명 이상의 재배업자 들로부터 절화를 사들인다.

라. 한국상품 인지도 및 유망상품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가격대비 품질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한국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시아국가들의 제품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뛰어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산 및 유럽산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게 흠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제값을 받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하기 언급한 상품들은 2005 년 시장개척단 등 암스테르담무역관에서 추진한 사업 관련 바이어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한 네덜란드내 유망한 우리 상품들이다.

1) IT 및 전자제품

2005 년 암스테르담무역관이 추진한 사업 관련 네덜란드내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던 제품은 단연 IT 및 전자제품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바이어들의 인식이 한국이 IT 및 전자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 금년도 사업결과 그대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내 온라인쇼핑몰이 2004 년부터 급속히 증가되면서 각종 첨단 컴퓨터부품이나 IT 제품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것이 2005 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기업 제품중 암스테르담 사업에 참가한 P 사의 광학펜마우스, S 사의 프로젝션키보드, A 사의 USB 드라이버 등 컴퓨터 관련 첨단제품과 전화와 보안용 알람기능을 결합한 보안전화는 바이어들이 가격 조건만 맞게 되면 언제라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힐 정도로 인기를 끈 제품들이다.

PDP/LCD TV 및 위성방송수신기도 인기품목중 하나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네덜란드내에서 디지털위성방송이 본격 가동되면서 시장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그대로 반영, 위성방송수신기 업체인 I 사의 경우 상당규모의 계약을 이루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2) 미용 및 건강관련 제품 (손톱손질용도구, 허브이온발생기, 숙취해소 바이오음료)

한국산 미용용품은 네덜란드내에서 이미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로부터 지속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금년도 무역관 사업에 참가했던 우리제품중 손톱 미용 관련품목이 바이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2005 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손톱미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수의 손톱미용 트레이닝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젊은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손톱 깎기를 포함한 가위, 족집게 등은 향후에도 관심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관련 품목도 네덜란드내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열게된 품목이다. 2005 년말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P 사의 허브이온발생기의 경우 바이어들이 상당한 관심을 집중했는데 이는 네덜란드 내의 로하스(LOHAS)에 대한 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네덜란드내에 허브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숙취해소용 바이오음료도 성공적인 상담을 이루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약 1.1 백만명이 음주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0% 정도가 상당한 수준의 음주로 인해 숙취에 고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숙취해소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의약품이고 건강제품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기술로 개발된 숙취해소용 드링크와 껌은 바이어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일부 바이어의 경우 상담기간중 한 컨테이너 분량의 제품을 현장에서 계약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3) 자동차 관련 품목 (자동차용 HID 램프키트, 차량용 핸즈프리)

한국산 자동차의 네덜란드내에서의 높은 판매율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부품 및 액세서리, 관련제품들을 찾게 되는 바이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 년 중반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P 사의 자동차용 HID 램프 키트와 차량용 핸즈프리가 네덜란드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HID 램프는 네덜란드내에서 아직까지는 대중화를 이루지 못한 초기단계의 시장을 형성하고 제품이다. 600 유로 이상의 고가격으로 인해 대중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 수요층이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HID 램프의 경우 가격적인 경쟁력만 갖추 경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선도적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핸즈프리도 대표적인 유망품목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네덜란드내에서 차량용 핸즈프리 시장은 연간 약 30% 이상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 각국의 관련기업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내에서 각종 제품에 활용되고 있는 블루투스기술을 활용한 핸즈프리 제품이 가장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는데, 바이어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탁월한 수신감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모바일폰과 자동차오디오를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관련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 농자재 (원예용결속기, 하우스테이프 등)

세계적인 원예국가로서 유리온실산업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시설원예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유리온실의 경우 원예용결속기 및 하우스테이프 등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스페인을 포함한 인근 유럽국가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5 년 중반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B 사의 경우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위해 그동안 경쟁 국가의 제품을 면밀히 분석하고 네덜란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예용 결속기 및 하우스테이프 등을 개발하여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향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22.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네덜란드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방법으로써는 각 산업별 전문 협회나 기관, 그 외 전문 잡지 등 매체 그리고 전시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산업별 바이어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으며 일부 협회가 관련 회원사 리스트를 제공하나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네덜란드와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무역관을 통해 발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암스테르담무역관의 경우 수십년간 축적한 바이어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업체요청시 가능성이 있는 바이어들을 직접 접촉해서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만 엄선하기 때문에 거래성약에 가장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발굴을 희망할 경우 KOTRA 본사 및 각 지방무역관을 통해 유료조사 대행으로 요청할 수 있다.

23.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무역관 유료조사대행 요청이 여의치 못하는 기업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바이어 정보 관련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는 www.abcdirect.nl로 약 12만개사의 기업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동 사이트는 네덜란드 기업디렉토리중 유일하게 영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업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의 간단한 정보(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정보를 통해 바이어들과 접촉할 수 있다.

24.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상거래시 유의사항

네덜란드 상인은 협상에 대단히 능하며, 사소한 일에도 냉정한 편이다. 또한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들은 거래자간의 신뢰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규판로 개척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한번 거래를 맺으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상 네덜란드 비즈니스맨을 만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약속 필요하다.

네덜란드인은 불쑥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전 약속은 촉박하지 않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름을 불러도 좋다고 하지 않는 한 이름을 부르지않는 것이 예의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명함에 학위나 신분계급을 표시하는데, "MR"는 남자를 칭할 때의 'MISTER'의 뜻이 아니라 법학석사 또는 변호사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30분경 마치며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가족적이기 때문에 일찍 귀가하는 편이다. 따라서 저녁 때 상담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을 겸한 저녁식사 초청 시에는 7:30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덜란드사람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점심은 보통 12:30-13:30까지 하며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드는 편이다. 거래가 성사된 후에는 축하의 의미로 식사하는 것은 좋아한다. 처음 술잔을 돌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잔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PROOST"라고 말하고 마시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편, 네덜란드인은 주문물품의 배달이 지연될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급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클레임 제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Delivery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가. 첫 접촉은 우편을 이용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시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편을 통한 정보를 선호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바이어정보에 대한 공개가 여타 국가보다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의 수출상들로부터 수많은 거래제의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팩스나 이메일보다는 우편을 통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을 통해 제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첫 번째 우편에는 제품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제품설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리스트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암스테르담 무역관에 제공하는 바이어리스트 경우 개별적인 전화접촉을 통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수입상들만을 엄선하고는 있으나 이들 바이어 역시 당장의 구매의사보다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선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편을 통한 세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래성사를 위한 지름길로 인식된다.

나. 영문 카탈로그는 필수

대부분의 해외마케팅이 그러하듯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는 네덜란드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네덜란드 국민의 약 80%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네덜란드어로 된 자료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문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기업들의 경우 가끔 국문카탈로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바이어들은 쉽게 관심을 잃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문 카탈로그 제작은 필수적이다.

또한 네덜란드 기업 및 제품카탈로그에 대해 기업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작시 가능하다면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이 신뢰를 갖게 하는 데 유리하며 내용 중 오탈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기업소개서(Company Profile)도 중요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납기준수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신뢰도는 공급선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소개서는 바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물이다.

기업소개서에는 일반적 사항 외에도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시설 등의 사진이 들어가면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발명특허이나 신제품 생산능력 등 자기 회사 고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회사소개서 제작이 어렵다면 회사 역사, 직원수 등 기초정보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카탈로그와 같이 제작되어도 무방하다.

라. 첫 접촉시 Price List 송부는 금물

네덜란드 바이어들과 접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접촉시 가격리스트를 보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공급업체가 대뜸 가격리스트를 보내왔을 경우, 대부분의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모든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쯤으로 여기며 실거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격리스트를 배포한 업체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의 혹독한 가격 후려치기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샘플 역시 첫 번째 메일링에 동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볼펜, 열쇠고리 등 저가품이 아니라면 좀 더 상담이 진행된 다음에 샘플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방문은 항상 사전약속을 통해

바이어들과 접촉이 잘 이루어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바이어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덜란드 바이어가 우리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을 방문한다면 가장 좋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항상 바이어와의 사전약속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인들은 유럽내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좀처럼 만나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나게 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바. 선물 및 복장도 중요

네덜란드인들 역시 비즈니스에 있어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지만 선물의 경우 뇌물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선물이라면 오랫동안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다.

상담시 복장 역시 신경을 써야 한다. 복장의 경우 정장이 가장 바람직하나 정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를 차릴 수 있다.

사. 대화주제

네덜란드인은 사업상의 성공을 즐기며, 보통 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외에 편안한 대화 주제로는 축구와 네덜란드 문화, 가정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주제는 다소 심각해질 수가 있으므로 가벼운 대화 시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아.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우선

네덜란드 시장은 유럽의 테스트 마켓이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다가 젖은 휴지를 말리는 나라가 있으면 거기가 네덜란드다” 라는 극단적인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검소하다. 게다가 상인기질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격조건을 거래시 가장 고려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은 네덜란드 시장에서의 성공의 제 1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25.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가. 점차적으로 신용거래 확대

네덜란드의 경우 점차적으로 LC거래에서 신용거래로 변화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30일에서 90일정도의 외상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TT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은행에 현금을 예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초기 계약의 경우 상당수가 외상거래 또는 TT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네덜란드를 이용한 아프리카, 중동인들의 무역사기 주의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들의 무역사기는 이미 알려진 바 오래다. 이들 사기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는가 하면 이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을 이용하고 있다. 2004년에는 터키인이 운영하는 네덜란드 국적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를 이용한 사기가 부쩍 늘어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이며 우리에게서는 히딩크의 나라로 잘 알려진 유럽 선진국 네덜란드가 무역사기 국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사기단들이 네덜란드가 무역거래에서 신용도가 높고 국제금융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임을 심본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사기임을 직감하면서도 그들의 완벽한 서류와 네덜란드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에 사기를 당하게 된다. 암스테르담 무역관에 문의한 이런 유형의 사기 사건만 해도 여러 건이다.

다. 송금 비용 요구

사기단의 수법은 대개 비슷하다. 사기단은 자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 또는 서방은행과 코레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현금을 네덜란드에 있는 자금 보관회사 또는 자금중개회사(Security Company라고 함)에 맡겨 놓을 테니 직접 찾아가거나 중개회사에 송금을 요청하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단이 현금 수수비용을 요구하거나 중개 회사에서 자금 송금비용을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업체는 그나마 다행이다(중개회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알게 된다. 주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전화와 팩스 번호는 06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핸드폰 번호이다).

1) 사례

B사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비용을 송금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네덜란드 중개회사를 방문했다. 중개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안내해 찾아가한 회사는 흑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칸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무실 집기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건장한 흑인들로 복직거렸다.

D사는 국제입찰에 낙찰된 경우로 사기단에서 요구한 송금비용을 지불했으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 네덜란드에 있는 중개회사는 자금이 국제기구의 원조자금이라 지폐에 certified 등의 글자가 찍혀 있어 이를 제거해야 보낼 수 있는데 이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수 화학약품이 필요하므로 화학약품 구입비용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D사는 네덜란드 중개회사를 현지인의 안내로 어렵게 찾아갔으나 역시 흑인 밀집지역의 아파트에 위치한 허름한 사무실로 사기단은 현금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화학약품 구입비용을 요구했다.

암스테르담 소재 터키인이 운영하는 파이낸싱 겸 컨설팅 회사인 네덜란드의 M사는 익명의 7천만불이 영국의 F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나, 동 자금은 EU 규정상 해당 자금이 테러 및 마약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약 10만불의 예치를 해야 만 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한국인을 만나게 된다...(중략)...M사는 한국기업인과 미팅시 조작된 영국 은행구좌를 보여주면서 설득하여, 한국기업인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3천만원의 동업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함에도 진전되지 않고 계속 자금만 요구하는 M사를 수상히 여겨 암스테르담무역관에 M사의 신용조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무역관 조사 결과 M사는 존재도 없는 유명회사에다 시초부터 사기극을 벌인 것이 판명되었다.

라. 사무실 전화 및 팩스번호 확인 필수

네덜란드 중개회사에 현금을 보내 거래대금을 송금하겠다는 지불조건을 제시하는 아프리카 업체와의 무역거래는 100% 사기이므로 우리업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기단에서 제시하는 중개회사의 전화, 팩스 번호가 06(국가코드 포함시 31-6-고유번호)으로 시작하면 핸드폰 번호이므로 일단 의심해야 한다.

26. 통관절차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입업자는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이 통관대행업체를 이용한다.

수입물품의 20% 가량이 랜덤형식으로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게 되며 40%는 일체의 검사 없이 자동으로 즉석 처리된다. 나머지 40%는 물품심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거친 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된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전산화(Sagitta)되어 있기 때문에 통관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등록된 컴퓨터로 회사 또는 자기 집에서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통관업체는 세관에 갈 필요가 없으며 수입 신고 후 B/L, Invoice 또는 원산지 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는 우편 또는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세관에 전달하면 된다.

세관이 지정한 날에 물건을 인도 받기 위해 수입품이 보관된 창고로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종료되며 수입 절차는 물품 도착 후 1-2일 이내에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통관제도중 주기적 신고제도가 있는데 수입신고가 많은 수입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수입 신고를 매 건마다 할 필요 없이 일정기간 (통상 월 1회)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며 관세도 이 때 종합적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통관절차가 간편한 이유는 네덜란드가 전략적으로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이 때문에 상당수의 수입물품이 네덜란드 반입보다는 재수출용이 많다.

가. 자유항보다 더 자유로운 수출입 통관제도 채택

네덜란드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통관이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농산품, 철, 식물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가 밝혀지지 않은 수입품은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간 선적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단일 운송서류를 발행하고 있다. 이 운송서류는 수입업자가 운송업자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EU내 통일된 절차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수입업자, 통관중개인, 운송업자들은 모두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수입통관 대행은 CDIU로 일원화

네덜란드는 수입통관대행사로 CDIU(Central Import-Export Agency)을 지정하고 있어 수입에 대한 허가는 CDIU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화물 포장박스 표시의무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 등의 수입상품에 대한 표시요구는 없으나 곁포장에는 수입자의 상표와 식별 가능한 번호가 명기되어야 한다. 식료품 등의 상품은 특정 라벨링 방법이 요구되며 제조업체명, 성분(양), 구성, 원산지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U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만 취하고 있는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다. 또 EU 반덤핑규정 적용으로 자체적으로 제3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취하는 예도 없다. 지난 96년 1월부터 개정 발효된 베네룩스 상표권 관련법에 의해 제조업자의 사전 허락 없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 금지되어 있다.

다. EU 이외에 대해 최고 20%까지 관세

관세기준은 EU 공동관세 적용하고 있어 역내 교역에 대해선 사실상 무관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EU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가 등 ACP국가(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 특혜 관세(GSP)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 WTO(GATT) '관세평가협정'에 가입하고 있어 HS 상품분류 기준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EU 회원국으로 제3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품에 대한 관세는 5~8%이며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없거나 매우 낮은 상태다. 수입관련 내국세(Exercise Tax)로는 음료, 포도주, 맥주, 주류, 담배, 설탕, 석유제품 등에 대해 특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수입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을 통과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CIF 가격과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재수출시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부과된 관세가 적정하지 않다는 청원이 있을 경우 환급되며 관세 감독에 따른 사고 등의 이유로 상품이 파괴되었을 때도 환급한다. 그리고 지불인이 클레임을 걸었을 때도 관세를 환급한다.

라. 수입관리제도, 국가별·품목별로 분리

네덜란드의 수입관리제도 기본원칙은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EU 국가들로부터 수입은 완전자유화 ▲대 EFTA 지역국가 수입도 원칙적으로 자유(일부 품목 제외) ▲일본, 홍콩으로부터 수입은 상당품목이 수입허가 품목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북한 포함)로부터 수입은 전 품목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농·수산물 수입령에 따라 가축, 육류, 과일, 낙농제품에 대해 농수산물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육류제품은 지정된 도살장의 수의 검역증이 요구된다. 그리고 채소류 제품은 식물위생 검역증이 있어야 한다. 공산품 수입령에 규정된 석탄, 철강 섬유류 등은 경제성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 및 원산지 불명 제품은 관계부처의 장관 허가를 말아야 한다. 위험물의 수입은 제한되며 화학물과 의약품 수입은 공공 시험기관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 관련 허가증에는 HS 분류법과 해당관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입허가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모두 할당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당량 수입허가는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네덜란드의 수출지원제도로는 수출품에 대해 부가세와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 환급은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부자재에도 적용된다.

경제부 산하 네덜란드 해외무역기구(Netherlands Foreign Trade Agency)에서는 상품 홍보를 위한 국제전시회 참가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부 산하 수출금융기구(EFF : Export Finance Facility)는 자본재 수출업체가 국제 경쟁입찰에서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국제금리와 높은 국내 금리 사이의 금리 차액을 최하 2년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자유항(Free Port)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항보다 더 자유로운 로테르담항'으로 불릴 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간소화·정보화된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화물의 환적과 보세장치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다. 또 50개국 이상과 이중과세 방지에 대한 쌍무협정을 체결해 수출입 업자를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외국 보세물품은 세금, 관세, 공과금 등의 부과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세관 감독만으로 환적, 취급, 저장 및 유통가공이 가능하다.

보세구역 내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 즉 포장, 재포장, 중량측정, 견본채취, 상표부착, 청소, 혼합 등의 기능은 물론 조립과 가공도 가능하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간단한 조립 가공이나 수리작업이 필요한 제품은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연합내 거주자에게 판매될 보세창고내 저장 물품은 수입 관세가격에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고 보세창고내 보관물품은 24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네덜란드 물류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다.

27. 운송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이 남한의 40%에 불과하지만 1일 생활권인 반경 300마일안에 1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집중된 중심지로서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고 있다.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독일 루르공업지대를 비롯해 주요 지역에 수로와 육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화란투자진흥청이 최근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기업의 경우 611개중 57%, 아시아기업은 344개 중 56%가 네덜란드에 유럽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자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3만명이 넘으며 물류전문서비스기업만 160여개가 움직이고 있다.

가. 육상운송

로테르담항구 또는 스키폴공항으로 들어 온 물건은 고속도로 및 철로를 통해 영국,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반도, 이탈리아까지 연결된다. 벨기에, 독일과 함께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 24시간내에 유럽 전역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도로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유럽내 운송화물트럭의 30%가 네덜란드 기업 소유로 물류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송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수상운송

라인강을 중심으로 건설된 운하를 통해 벨기에, 독일 북부산업지역, 남동부지역, 프랑스 북동부까지 선박수송이 가능하다. 1992년 개통된 라인-마인-다뉴브강을 잇는 RMD 운하를 이용해 발칸국가까지도 연결된다. 수상운송시 낮은 수심과 다리 등을 감안해 특수 제작된 바지선을 이용한다. 이러한 바지선은 주로 건축자재, 철강재 등의 벌크화물을 처리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300톤에서 4,000톤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4척에서 6척을 묶어서 최고 15,000톤까지 한꺼번에 수송이 가능하다. 선박운송이 가능한 내륙수로가 총 연장 5,000km로서 이 가운데 1,500톤급의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도 1,800km나 된다.

일반적으로 유럽물류센터는 유럽내 5개국 이상에 배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복수의 외국어 구사는 물류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인들은 유럽내 영어구사 능력 및 복수외국어 구사측면에서 최고 수준이다.

다. 네덜란드 물류의 양대 축 - 스키폴국제공항과 로테르담항

1) 스키폴 공항

2005년도에 네덜란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4천4백만명, 항공화물 취급량도 150만톤으로 집계 되었다. 스키폴공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 서남쪽 17km 지점에 위치한 스키펴국제공항(Schiphol International Airport)는 연간 40만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유럽 최고의 공항중 하나로서 세계 10대 여객수송 공항에 속한다.

영국의 유력 여행지인 Business Traveller지는 연례 여론조사를 통해 1980년 이후 21차례나 유럽 최고의 공항으로 스키펴을 선정했다. 이러한 선정배경에는 공항이용자들이 '스키펴 = 가장 편한 공항'을 연상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터미널이 한 지붕 아래에 구축되어 있으며, 카페, 사우나, 카지노, 공항내 호텔, 박물관 등 환승하는 승객에게 최상의 서비스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 밖에 나오더라도 잘 된 도로 교통망은 물론, 공항에서 유럽 주요도시를 오가는 기차와 암스테르담 시내로 연결되는 기차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AL, Asiana도 주 2-3회 항공화물 수송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KAL은 주 3회 인천-스키펴 여객편을 2005년 3월말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스키펴공항 마케팅에 뛰어든 것이다.

2) 로테르담항

로테르담항은 물동량에서 1962년 이후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물류 항이다. 연간 5백만개의 컨테이너와 3억1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37%가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항을 경유하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에서 취급하는 연간 3억톤의 물동량중 80%가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환적 물량이다.

로테르담항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그쳤던 1세대 항만, 수송거점 및 상공항 중심지 역할을 했던 2세대 항만 기능을 넘어 복합운송체제와 국제물류 중심지로 기능하는 3세대 항만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다.

3) 운송회사

○ 한진 해운 (해상운송)

- 주소 : Waalhaven Z.Z.12 Rot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 31-10-403-8407
- 팩스번호 : 31-10-411-5104
- E-mail : yk.song@hanjin.com

○ 현대상선 (해상운송)

- 주소 : Westblaak 180 Rot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 31-10-280-2580
- 팩스번호 : 31-10-280-0583
- E-mail : rohkh@hmm21.com

○ Geodis Vitesse (통관 및 내륙운송)

- 주소 : Willem Barentszstraat 41-49 Rot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 31-10-428-6510
- 팩스번호 : 31-10-428-6657
- E-mail : sweima@vitesse.geodis-logistics.com

- FNS Benelux B.V (통관 및 내륙운송 - 구 범한물류)
 - 주소 : Valkweg 1, 1118 2C Schiphol,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 31-20-659-0100
 - 팩스번호 : 31-20-659-0110
 - E-mail : jhpark@fnsbn.com

28. 분쟁해결 절차

네덜란드 기업과 교역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네덜란드 상사중재원(NAI;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상사중재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197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협정을 체결하여 상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 상사중재원과 대한상사중재원간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상거래 관련 네덜란드에서 행하여지는 중재는 네덜란드 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행하여지는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중재는 UNCITRAL 국제법을 기초한다.

네덜란드 상사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재가 행해지는 장소는 계약서 내용 중에 또는 그 후에 당사자가 서면으로써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사자가 이러한 장소에 관하여 합의하고 있지 않은 때는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 중재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그가 희망하는 어느 일방의 협회에 서면으로써 통지하고 중재장소에 관한 쟁점 및 선호이유를 제출한다.
- 통지를 받은 중재기관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위 항에서 말하는 서면의 사본을 송부하고 그 당사자가 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의 중재장소에 관한 쟁점 및 선호이유를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그와 동시에 그 중재기관은 다른 중재기관에도 통지하고 위 항에서 말하는 서면의 사본을 송부 한다.
- 위 항에서 말한 기간이 경과한 후 최초의 통지를 받은 중재기관이 중재장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단,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이러한 결정을 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 위원회는 3 인의 위원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각 협회가 각각 1 인씩 선임하고 의장으로써 행동하는 제 3 의 위원은 선임된 다른 2 인의 위원이 선임한다. 제 3 의 위원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과도 같지 않은 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 위원회에 의한 중재장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분쟁 당사자를 구속한다.

- Ned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NAI ; 네덜란드 상사중재원)
 - 주 소 : Aert van Nesstraat 25 J/K 3012 CA Rot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 31-10-281-6969
 - 팩스번호 : 31-10-281-6968
 - E-mail : secretariat@nai.nl
 - Website : www.nai-nl.org

VI. 투자

29.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기업의 대네덜란드 투자 개요

유럽 단일시장 도입 이후 네덜란드는 외국기업들의 유럽물류센터(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및 유럽지역본부(European Headquarter) 입지로 주목되어 왔다.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 및 금융 센터가 다수 설립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적 기업의 제3국 우회투자기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리적 이점 및 발달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UNCTAD 집계에 의한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은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동구 및 중국지역 등으로 투자거점을 분산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통계에 의하면 2003, 2004, 2005년에 각각 금액기준 투자유치액은 192억유로, 3억유로, 351억유로이며, 투자진출액은 -391억유로, -139억유로, -961억유로로 집계되어 외형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는 활발한 반면, 투자진출은 부진한 것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DNB 통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점간 대출 및 재투자, 그룹 내부기업간 포지션 변화 등의 제반 금융거래를 반영하고 있어 순수 FDI 투자실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한 통계로 간주된다.

나. 물류중심지로서의 외국기업 투자동향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물류입지의 강점은, (1)우수한 인프라, (2)좋은 기업환경, (3)발달된 물류서비스, (4)친기업적인 정부 등을 들고 있다.

HIDC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 5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EDC(유럽물류센터) 점유율을 유럽국가간에 비교한 결과, 네덜란드 51%, 벨기에 18%, 독일 11%, 프랑스 8%, 영국 8%, 기타 4%로 나타났다. 유럽물류센터의 50% 이상이 네덜란드에 설치되어 있음을 뜻한다.

네덜란드에 EDC의 설치 외국기업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Deltran Corporation, Fuji Heavy Industries, Perfect Fit Industries, TYC Europe, 화학의 경우 Essential Industries, Masterank Ltd., Sattler, Toyo Gosei, 의류 및 스포츠용품의 경우 Altama, Dunlop Slazenger Group, Macpac wilderness Equipment, 식품 및 음료의 경우 GUM Products International, Heritage Health, Vodka Cruiser 등 다수가 있다.

다. 제 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이용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친기업적 금융 및 세제시스템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제3국에 투자할 때 네덜란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한국과 같은 제 3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네덜란드 기업명의로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필립스, ING 등 네덜란드 오리지널 기업의 대한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제3국 기업이 네덜란드를 우회한 대한투자 실적이다.

이는 네덜란드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관대한 과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네덜란드 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그리고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등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 최근 외국기업의 대네덜란드 투자 동향

유럽의 투자유치강국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 동구권에 비해 상대적인 투자환경 악화, IT 서비스부문의 투자유치 감소, 숙련노동자 및 대단위 투자유치 공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별로는 대네덜란드 최대 투자국이었던 미국이 2003년 62억 유로, 2004년 77억 유로의 투자금액을 회수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다시 30억 유로의 순투자를 기록하였다. 대네덜란드 투자자금의 회수는 대부분 다국적기업 내부자간 대출금 회수 또는 모기업에 의한 투자이윤 송환 등의 국제간 송금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DNB-네덜란드 중앙은행, 2006.6월)

NFIA가 관리하는 잠재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실현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104개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후, 2004년에는 102개의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자체 집계하여 외국기업의 대네덜란드 투자감소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는 112개의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3,1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투자실현으로 6억불의 순투자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혀 투자유치 회복 가능성을 Press Release한 바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며, 동 부문은 여전히 유럽 경쟁국에 비해 높은 FDI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약 등 여타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동구권 및 중국 등 제 3국 신흥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투자유치환경 및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원: NFIA, HIDC, Ernest & Young, DNB, UNCTAD WID Country Profile)

30.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진출 개요

우리나라 기업의 네덜란드 투자진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음.

- 유럽 물류센터: LG 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세브로레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 조립생산공장 및 서비스센터: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필립스 등
- 유럽마케팅 및 판매센터: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대상 등

우리기업의 대네덜란드 투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럽공동 물류센터’ (KEDC, 주관자는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의 운영으로, 중소기업형 현지법인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진출 -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불)

2004		2005		2006(1-6)		누계(1962-2006.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4.2	11	40.9	1	26.0	88	2,744.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6.7)

나. 우리기업의 대네덜란드 주요 투자기업 현황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엔진(유럽)서비스센터, 한진해운(지점), 한국타이어, 하이록 금속, 팬텍, 인터불고, 인드텍, 이수유럽, 원진, 엑스로지스, 아트라스비엑스, 수산중공업, 세브로레유로파츠센터(대우자동차부품), 세브로레네덜란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미유럽, 볼보건설기계, 범한물류, 맥트랜스, 디지털웨이, 디지털디바이스, 대우전자, 대상, 대륙화학, 다다무역, 고려제강, 실버크리너, 메디슨, LG전자, LG CNS, 디엔에스 등

31. 투자환경

가. 네덜란드의 경제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 협소한 국토면적: EU 15 개국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세계 10 위권의 무역대국
- 초대형 다국적기업 다수 소재: 세계 500 대기업중 16 개, 유럽 500 대 기업중 33 개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항 보유 (유럽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 시장의 Test Market: 시장 자유화로 국내외 기업간 경쟁 치열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US\$45 억 (세계시장의 60% 공급)
 -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유럽의 경제발전 Model
 - Polder Model: 노.사.정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열악한 국토환경하에서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산업 육성, 성장

나. 투자 적격지로서의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

1) 지리적 중심지 및 양호한 접근성

- 반경 300 마일 (일일 생활권) 이내 1억 7천만명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 소재
-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
- 독일 루르 공업 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
- 로테르담에서 주요 도시까지 거리 및 운송 매체별 소요시간

도 시 명	거 리(km)	도로/기차	운 하
오스트리아(비엔나)	1,180	2 일	10 일
프랑스(릴리)	825	1 일	2 일
독일(베를린)	710	2 일	8 일
헝가리(부다페스트)	1,435	3 일	11.5 일
폴란드 (바르샤바)	1,285	4 일	10.5 일
체코(프라하)	890	3 일	-
스위스(바젤)	670	2 일	4 일

자료원: Rotterdam Hinterland Connection, Port of Rotterdam

2) 풍부한 사회간접자본

□ 로테르담항(Port of Rotterdam)

62 년 이후 물동량면에서 부동의 세계 1 위로 자리매김. 처리능력은 연간 5 백만개의 컨테이너와 3 억 1 천만톤의 화물 처리.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37%가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항을 경유

☞ 로테르담항 항만정보시스템(INTIS): 로테르담항은 INTIS 라 불리우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을 통해 처리.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

□ 암스테르담 스키폴(Schiphol) 국제공항

스키폴공항은 유럽 4 위의 공항으로, 전세계 240 개국 이상의 지역으로 취항함.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시설이 우수하며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 체계도 탁월함. 과거 20 년간 Business Traveler International 에 의해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 으로 선정

암스테르담의 항만 및 공항시설과 로테르담의 항만시설은 도로, 철도망, 내수로 등 내륙 운송수단을 통해 유럽 주요 시장들과 연결. 도로는 총 연장 134,000km, 수로는 6,200km, 철로는 6,500km 임. 도로 포장율 90% 이상이며, 선박운행 가능 내수로는 5,000km, 이중 1,500 톤 이상의 대형선박 운행가능 수로는 1,800km

3)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무역국가로 무역 및 운송이 화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세계 10 위의 무역대국이며, 세계 5 위의 대외 투자국

3 만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관련 비즈니스에 근무하며, 160 여개의 물류 전문 서비스업체 보유

물류관련 협회 및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위 및 물류실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시행

4) 효율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의 세관시스템

EU 공통의 관세법을 적용 받지만 운용면에서는 EU 국가별로 관세법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절차가 간편하고 융통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물류 반입일자에 따라 부가세나 또는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국가로의 물류수송이 가능 하며,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속적임.

5) 유럽 국가 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남녀노소 및 직업 구분 없이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며, 영어 이외에 독어, 불어 등 기타 외국어 구사도 우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자랑함. 단기 및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 손실은 적은 편으로 알려짐.

다.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의 단점

□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 고용시장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평균근로시간이 작은 편에 속한다.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법령과 문화 때문에 종업원 결근이 많고, 정규직 해고 시에는 노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부문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정부, 근로자와 기업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2. 투자인센티브

가. 인센티브 개요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간의 차별이 없으며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 투자할 때의 명문화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외국기업 전용 투자단지,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

특정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정책차원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수혜사례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수혜방법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세부 인센티브

1) 중앙정부의 IPR (지역투자보조금)

-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
- Greenfield 투자가 주요 대상이며, 네덜란드 북부지역이 주요 수혜지역
-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25%는 자기자본으로 투자

2) EU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 ESF-II(유럽연합 사회기금-II)는 신규 채용, 실업직원 채용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EFRO(지역개발펀드)는 유럽연합 조건에 부합시 제공

3) 수출촉진제도

- EVD에서 시행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과 유사
- PSB(신규 수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PESP(초기 수출의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EKV(수출신용보험제도) 등

4) 고용보조금

- 지역고용사무소(Arbeidsbureau)와 협력하여 실업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수혜 가능
- 종업원 교육을 위해서 ESF 등 프로그램 수혜 가능

5) 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 환경의 경우, 유럽연합의 EU THERMIE프로그램 수혜 가능
-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상황호전에 기여한다는 추천을 받는 경우에 수혜 가능

6) R&D 보조금

- BTS: 환경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
- TOP: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Decree에 의해 신규개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주기 위해 최대 25%까지 비용지원

7)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FDI 인정여부 및 인센티브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주식취득의 경우로서 회사설립, 인수합병의 형태를 포함하여 관계회사간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대출, 재투자이익잉여금, 그룹사간 계정구조 변경) 및 부동산 거래 등을 모두 직접투자자로 인정
-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직접투자가 에너지 절약형 자산 구입, 환경친화적 자산 구입, 영화(film) 제작 산업 투자, 신기술 취득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 및 해당 종업원 임금 등과 같이 특정 항목에 속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

(자료원: NFIA, PWC Netherlands,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료종합)

33. 타당성조사

가. 타당성 조사 개요

네덜란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법인, 지사설립 등 투자의 타당성 검토시, 외형적인 네덜란드 투자환경은 물론,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재수출됨으로 해서 국내 시장수요가 외형보다 작은 점 등의 경제 실상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네덜란드 투자환경에 대한 기본정보는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NFIA: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또는 동 서울사무소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다.

나. 타당성조사시 검토해야 할 사항

네덜란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활동을 특별히 제약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비즈니스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은 개인회사, 연락사무소, 지점,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내국인과 같은 방식에 의해 기업설립이 가능하다. 투자방법도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 모두 가능하며 특별한 제약이 없다.

네덜란드의 투자 또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 경제의 특성, 투자적지로서의 장단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 내용은 '투자환경' 부문 참조)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외국어 구사력이 뛰어난 반면, 평균 임금과 사측의 고용주세 부담이 높고,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반면, 3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정규직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네덜란드의 무역규모는 큰 편이나 수입물량의 2/3 정도가 재수출되고 있어 자체 내수 시장 규모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입지는 여타국가에 비해 불리한 반면, 서비스의 경우 강점이 있다. 이른바 유럽의 물류중심지로서 서구 유럽에서는 여전히 물류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로테르담항만과 스키폴공항이 있으며 물류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네덜란드는 비교적 소규모 회사의 부침이 심한 편으로 합작투자 시 파트너에 대한 신용상태는 지역상공회의소 또는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재정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덜란드라는 국가신뢰도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제 3국인 계열의 악덕기업이 많으므로, 철저히 신용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34.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네덜란드에서의 기업진출 형태는 (1)연락사무소, (2)지사, (3)법인 설립 등으로 나누어지며, 법인설립은 다시 유한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나누어 진다.

가. 연락사무소(The Representative Office, The Liaison Office)

1) 연락사무소 설치 개요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없으며 시장정보 수집 또는 국내 연락망으로서 활동한다.

연락사무소는 현지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무실 운영의 필요에 의거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을 해야만 회사명의로 은행구좌 개설, 전화 설치 및 자동차임대, 직원 채용 등에 회사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대표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는 받아야 하며 직원 채용시 일반적인 현지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를 상공회의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지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지사 (The Branch Office)

1) 지사설립 개요

지사는 현지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모기업의 일부인 지점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B.V.라고 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상공회의소에 등록은 하여야 한다.

지사설립에는 회사등록증 발급을 위한 상공회의소 등록절차와 부가세 번호 등 발급을 위한 국세청 등록 등 2가지의 등록절차가 있다.

2) 지사설립 절차

□ 상공회의소 등록 (회사등록증 발급)

- 각종 신청서류 제출
 - 상공회의소 Form 6(외국기업등록서), Form 11(모기업의 대표이사 인적사항), Form 13(지사장 인적사항) (주) 영어양식도 있으나 제출시는 네덜란드어 양식 이용
 -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한국 상공회의소 등록증(영문)
 - 대표자 및 지사장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한다.
- 상공회의소 연락처: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 (KVK Amsterdam)
 - Add. De Ruij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0)20-5314000
 - Fax. 31-(0)20-5314799
 - Homepage: www.kvk.nl (신청절차 상세 안내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등록 (세무번호 취득)

- 국세청 신고서 제출: 신고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연락처: Belastingdienst Amsterdam
 - Add.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0800-0543
 - Fax. 31-(0)20-6877299
 - Homepage: www.belastingdienst.nl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지사설립의 장단점

□ 장점

네덜란드 진출초기에는 지사설립이 법인설립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가 용이하다.

□ 단점

지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모기업(본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자본금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B.V.(유한책임회사) 또는 N.V. (주식회사)와 다르다. 이 점에서 외국기업들은 지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 법인설립 (B.V.)

1) 법인설립 개요

- 네덜란드에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의 두 가지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증시상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B.V.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공모를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는 제한되어 있다.

- 지사 설립시에는 공증인이나 일반 여부에 관계없이 지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법인설립 절차

- 법인설립 발기인이 네덜란드의 공증인(Dutch Public Notary)를 지명한다. 공증인으로 법무법인을 지명하여도 된다. 공증인의 법인설립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약 3,000 유로가 소요된다. (동 수수료는 상호확인, 사업등록, 자본금납입에 따른 은행확인서, 법무부의 이익 없음 확인서, 공증수수료, 0.55%의 자본세 및 법률비용 등임)
- 공증인은 법인설립 발기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 받아 네덜란드 법무부에 “이익 없음 확인서”를 발급한다. 법무부 승인에는 약 8 주가 소요되나, 법무부 승인 이전이라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공회의소에 “설립정차 중인 유한책임회사 - B.V. i.o.”로 등록하면 된다. (i.o.는 설립절차가 진행중임을 의미함.)
-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 공증인에 대한 위임장, 설립자 및 이사의 각종 은행증명서, 설립자의 대차대조표,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위임장(공증) 등
- 주식발행 및 납입자본금이 최소한 18,000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45,000 유로), 동 법인자본금 보유 및 투자내역 증명은 은행잔고, 사무실비품구입, 차량구입 내역 등을 포함한 자본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 법무부 승인후 상공회의소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상공회의소 Form 3(법인등록), Form 11(본사 대표이사 인적사항), Form 13(법인장 인적사항) 등을 작성, 제출한다. 상공회의소 등록비는 약 145 유로이며, 동 절차도 법무법인이 대행한다.

3) 법인(B.V.) 설립의 장단점

□ 장점

현지 법인이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 단점

지사설립의 경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많이 든다.

- * (주) 지사 및 법인설립은 네덜란드에 설립할 사무실의 법적 지위이며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는 (1)근로허가서(Working Permit) 취득, (2)임시체제비자(MVV) 취득, (3)현지 부임 후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취득 등의 3 개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동 절차는 ‘이주정착가이드’ 참조

35. 입지선정

가. 산업단지

네덜란드는 산업별 특색 있는 산업단지,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 등이 없으며 외국기업은 해당기업의 비즈니스형태에 따라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류유통 중심일 경우 로테르담이 유리하며 유럽 본부 성격일 경우 스키폴공항이 있는 암스테르담이 유리할 것이다.

네덜란드에는 특징적인 산업단지는 없으나, 유럽물류거점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Warehouse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도시별로 조성되어 있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공단은 DSM(화학), Hoogeveen(철강)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그러나 DSM(DSM화학회사 소재: 한국의 울산과 유사), Hoogeveen(Hoogeveen 제철 소재: 한국의 포항과 유사) 등도 방대한 규모의 1개 단위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산업단지로 정의할 수는 없다.

네덜란드 내에 소재한 많은 공단들(암스테르담, 림버그, 로테르담, 알미르 등 다수 지방공단소재)은 대부분이 Warehouse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공단에 소재한 기업들의 활동은 물류 혹은 부가가치 물류로 집약된다. 즉 단순 물류유통뿐 아니라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일부 가공단계(라벨링, 일부 조립 등 포함)를 거쳐 소비시장별로 특화된 상품을 재생산, 수출/판매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특성상 한국식 산업단지의 개념이 네덜란드에는 없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중심항만도시인 로테르담이 잘 개발되어 있으며 동항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일부 집적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유명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산재해 있을 뿐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중소규모의 산업 클러스터가 일부 생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산업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다.

나. 과학단지(사이언스파크)

지방자치 단체별로 산업육성 전략으로 "Science Park"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단지 성격의 Science Park에는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벤처중소기업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산실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 설치된 Science Park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치	설립연도	면적(Ha)	입주업체/기관 수	근로자 수
Nijmegen	1989	1.5	25	100
Wageningen	1989	5.5	39	400
Amsterdam	1991	20.0	20	150
Leiden	1984	30.0	25	640
Enschede	1981	18.5	106	1,115
Groningen	1988	6.0	51	460
Delft	1992	30.0	15	27

자료원: EZ

36. 공장설립

가. 공장설립 가이드

외국기업이 네덜란드내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1) 네덜란드측 합자/합작선의 현물 출자, 2) 지방정부로부터 유상배정, 3) 부지임차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공장설립을 위한 표준절차는 없으며 각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인허가 관련사항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를 접촉, 자문을 구한다.

NFIA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나.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사항

공장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기초하여 건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공장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중앙정부 승인사항 또는 지방정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특히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평가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IA 또는 전문 컨설팅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부동산 취득시 지역 등기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시 소유권, 저당권, 관련 법원판결 등이 모두 기재된다.
- 기타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관할 시청내 지역건축심의위(Local Council)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증축 신청시 Local Council에서는 건축 부지, 건축물의 디자인, 공해산업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대형 건축물이나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건축물의 공업용수 허가는 관할 수로국(Water Board)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공해사업의 경우는 공해방지법 및 수질오염 방지법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 네덜란드 본부
 - Add: Bezuidenhoutseweg 2, P.O.Box 20101, 2500 EC The Hague, The Netherlands
 - Tel: +31 70 379 8818
 - Fax: +31 70 379 6322
 - Website: <http://www.nfia.nl>
 - Remarks: 투자유치 총괄 및 외국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경제부산하 투자유치 기관
- 서울 사무소
 - Add: Kyobo Building, 13th fl., Chongno 1-ka, Chongno-ku, Seoul, Korea
 - Tel: +82 2 732 1924
 - Fax: +82 2 732 1925
 - Homepage: <http://www.nfia-korea.com>
 - E-mail: nfiako@chollian.net
 - Remarks: 한국기업의 네덜란드 진출 지원

나. 화란국제물류협회 -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uncil, HIDC)

- Add: Kadelaan 6, 2725 BL ZOETERMEER, The Netherlands
- Tel: +31 79 343 8110
- Fax: +31 79 3347 92 17
- Homepage: www.hidc.nl
- E-mail: info@hidc.nl
- Remarks: 네덜란드 물류진흥 및 물류기업 투자유치기관

다. 상공회의소 -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 (KVK Amsterdam)

- Add: De Ruy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0)20-5314000
- Fax: +31-(0)20-5314799
- Homepage: www.kvk.nl (신청절차 상세 안내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Remarks: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등록기관

라. 국세청 - Belastingdienst Amsterdam

- Add: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0800-0543
- Fax: +31-(0)20-6877299
- Homepage: www.belastingdienst.nl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Remarks: 현지 지사 및 현지법인에 대해 부가세번호 부여 국가기관

3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회계법인 - Louwers & Partners B.V.

- Add: Dorpsstraat 10, 2712 AK Zoetermeer, The Netherlands
- Tel: +31 79 342 9942
- Fax: +31 79 342 9943
- Homepage: www.louwers.net
- Remarks: 중소 현지법인 회계감사

○ 회계법인 - PricewaterhouseCoopers B.V.

- Add: Bernhardplein 200, 1097 JB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 20 568 4296
- Fax: +31 20 568 4285
- Homepage: www.nl.pwc.com
- Remarks: 대형 현지법인 회계감사

○ 법무법인 - Bird & Bird

- Add: Parkstraat 31, 2514 JD, The Hague, The Netherlands
- Tel: +31-70-353 8800
- Fax: +31-70-353 8811
- Homepage: www.twobirds.com
- Remarks: 법률자문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KEDC(한국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자문기관
- Attn: Mr. Steven van der Waal

○ 한국계 현지은행 - Korea Exchange Bank

- Add: Dr. Willem Dreesweg 2, 1185 VB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 20 546 9371
- Fax: +31 20 546 9399
- Homepage: www.keb.co.kr
- Attn: M.S. Lee/Senior Manager (mslee@keb.co.kr)
- Remarks: 현지법인의 구좌개설, 예대업무 취급

39. 노무관리

가. 노사관계

네덜란드는 노사분규가 적게 발생하는 편이며,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조합과 사측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오랜 기간 형성된 결과이다.

1) 노동조합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결성비율은 27%에 불과한 데, 이는 유럽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노조원들은 네덜란드 산업노조연맹, 크리스찬 국가노동자조합 연맹 및 중고급 근로자 협의회 라고 하는 3개의 노동조합의 지배를 받는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덜란드에는 3개의 주요 사용자단체가 있다. 대규모 산업 연합회들을 대표하는 VNO-NCW 연합회, 중소기업들을 통합하고 있는 MKB Netherlands, 농업단체들을 통합하고 있는 LTO Nether Inds등이다.

3) 노동위원회

네덜란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지 위하여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3인에서 25인까지 다양하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금지되어 있다.

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은 크게 대상 집단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는 데, 국민보험제도(모든 거주자)와 사회보장제도(모든 근로자)이다.

국민보험제도는 모든 거주자가 노령,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자녀보호와 양육, 특별의료비 등으로 인한 금융상의 경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질병, 실업, 장기근로불가 및 진료로 인한 금융상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의료비, 질병 및 근로불가능 수당, 실업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지만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적인 분담금도 있다. 사용자 분담금을 피보험 임금의 비율로 표시하면, 불구수당 7.96%, 실업수당(WW) 4.45%, 의무건강보험법(ZFW) 6.25% 등이 있으며 모든 분담금의 경우 연간 지급할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다. 노동법규

네덜란드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규에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공휴일 수, 공휴일 수당, 안전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규정 이 외에도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근로합의서도 있다.

1) 근로시간법

근로시간법은 산업계와 정부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단일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여성들을 위한 임신중과 임신직후 근로시간 변경 허용, 어린이 근로금지 및 예외규정, 16-17세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유지 규정, 근로자들에게 근로형태 변경을 통지할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급직원과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시간법 적용 및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봉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고용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과 공휴일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상근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에 규정된 최소 휴가일수는 근무일로 20일이며 고용주들이 대부분 1주일을 추가로 준다. 고용기간이 만 1년 미만이면 휴가일 수는 비례적으로 결정된다.

유급공휴일은 신년 1월1일, 부활절 월요일 3/4월(변동), 여왕생일 3월30일, 예수승천일 5월(변동), 화이트데이(변동), 성탄절(12월25일), 박싱데이 12월26일 등이며, 법으로 명시된 다른 유급휴가일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행사 1-3일,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 3일, 다른 모든 가족 축일 1일 등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고용계약 종료시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고용계약 및 계약의 종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고용계약은 고용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고용계약에는 법규정이나 단체노동협약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고용계약서는 확정된 일정기간 또는 불특정 기간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 최대 수습기간은 2개월이다. 동 기간내 어느 시점에 양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채용지정일 및 고용 개시일, 계약의 성격(상근직 또는 임시직), 수습기간, 근무기간, 특정 계약기간, 직위 및 요구가 있을 경우 간략한 직무기술 내용, 임금, 2차 고용기간(예: 연금지급계획), 해당될 경우 비경쟁조항 및 비밀유지 조항 등.

고용주가 피고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종료하기 전에 노동 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유한책임 회사의 관리 책임자 해임
- 법원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
- 임시직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 근로자가 수습기간중 해고될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 즉각 해고사유(심각한 무능력, 절도 등 수용할 수 없는 행위, 총체적인 업무태만, 합리적인 업무할당에 대한 반복적인 수용거부)에 해당할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질병에 걸려있을 경우. 단, 그 기간이 2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군복무 중일 때. 단, 단체협약이나 법정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출산 8주전부터 출산후 16주까지의 임신부인 경우
- 근로자가 노동협의회 회원인 경우 등

(자료원: 네덜란드투자진흥청 투자안내자료(2006년))

40.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개괄

1) 법인세

법인세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부과되거나 외국법인의 네덜란드 내 상설조직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세율은 과세대상 이윤 22,689 유로까지는 25.5% (2006년부터)이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29.6%를 적용한다. 친기업적 환경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은 해마다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

거주자인 법인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네덜란드 세금을 면제해주는 여러 규정들이 [이중과세방지] 관련 조세협정, 일반 법령 및 참여지분 면세제도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개인 소득세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에서 창출하는 일정 소득 요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이 대상 소득그룹으로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 데, (1군 소득)은 직장가정에서 얻는 과세대상 소득, (2군 소득)은 고액의 이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기초 차감액 1,972유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추가 차감여부는 개인별 소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규모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1단계소득(16,893 유로까지)에 대해서는 34.15% (65세 이상은 16.25%), 2단계소득(16,894 - 30,357유로)에는 41.45% (65세 이상은 23.25%), 3단계 소득(30,358-51,762유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2%, 4단계 소득(51,763유로 이상)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5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3) 주재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 30% 비과세규정

네덜란드에 일시적으로 부임하는 주재원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30% 비과세규정을 소정의 협약과 신청요건을 필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네덜란드 체제와 관련한 추가적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동 일괄 비과세 수당은 최대 총 급여와 수당의 총액의 30%까지 가능하며, 이 최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100/70을 곱한 후 이의 30%를 구하면 된다.

4) 부가가치세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불리는 데, 네덜란드에서는 동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단계마다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가세 형태를 보면 기업이 자신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매출부가세), 구매시에는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후 해당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며 매출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반대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표준 부가세율이 네덜란드는 19%이며 이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 적용된다. 부가세율이 6%로 낮은 품목의 경우는 식품, 서적과 신문, 신문광고, 의약품, 승객운송 및 호텔 숙박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제 3국으로 수출될 경우 해당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제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수출입 물류가 많이 제 3국에서 물품이 네덜란드 물류창고로 입고되는 시점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네덜란드 바이어에게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이 일어나며 이 때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납부 및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네덜란드는 부가세납부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수입 통관하는 시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분기별 정산을 하여 상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동 부가세 상계과정은 통상 네덜란드 물류기업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제 3국의 수출업자는 네덜란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5) 환경세 및 기타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 등은 환경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환경세 법에 규정된 것들이며, 환경세와 유사한 크고 작은 세금들이 있는데 소비세(excise duties), 자동차세 그리고 승용차 및 이륜구동자동차에 대한 세금 등이 그들이다.

자료원: 네덜란드 재무부발간 조세안내 번역자료(2004),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투자환경 안내 한글자료(2005)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나. 2006년 네덜란드 조세정책

2005년 하반기에 발표된 내년도 네덜란드 정부의 조세정책의 특징은 환경보호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가계에 대한 세금부담을 소폭이나마 경감코자 하는 데 있다.

- 법인세는 29.6%로 인하한다. 총 이윤(profit)중 22,689 유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5%로 인하한다.
-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의 재산세(property tax, 0ZB)는 면제된다.
- 세금면제 대상 소득은 78 유로를 상향시킨 연간 1,972 유로로 조정한다.
- 인플레이션 반영을 위한 연료세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으며 이는 국내 항공운송 연료에도 적용한다.
-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취득세(BPM)는 7 월 1 일을 기해 연료소비 기준으로 바꾼다. 연료 절약형 자동차 (economical vehicles, energy label A and B)는 1,000 유로까지 세제 할인을 받으며 비절약형(uneconomical vehicles, energy label D, E, F and G)는 540 유로까지 할증세를 징수한다.
- 일반 연료엔진과 전기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하이브리드카는 6,000 유로까지 세제(BPM) 할인을 받는다.
- 바이오 연료에 대한 세금은 2% 인하한다.
- 자영업자(voluntary workers)에게 적용하는 세금공제 대상 비용(expenses)은 1,500 유로까지 상향한다.
- 장거리 도로 공사중에 있는 작업장을 오가는 피고용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대중 교통수단 이용용 통근카드’ 는 비과세한다.
- 1 자녀 양육보조금(children's allowances, 현재는 3 자녀)의 규모는 해당 가계의 총 소득에 따라 결정한다. 소득이 연간 28,521 유로 한도 내에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최대 802 유로를 지급할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 규모는 줄인다.

41. 외환관리

네덜란드에는 한국과 같은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 및 외환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 법령이 없다. 따라서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일반자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외환취급과 관련된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환전 및 송금할 수 있다.

42. 이주정책 가이드

네덜란드에 이주 및 정착하는 데는 입국수속을 마친 후 거주허가 접수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지 입국 후에는 이삿짐 통관, 주택임주, 자녀 학교입학, 전차 및 자동차 등록 등은 거주허가증 접수 전에도 가능하다.

가. 입국수속 및 현지 거주허가 취득 절차

현지 발령 또는 이주 확정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MVV(임시체제비자의 일종)를

신청해야 한다. MVV 신청서류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총 10가지 내외의 서류를 구비하고 필요한 서류에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MVV 취득에는 총 1-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모든 비EU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허가서(Working Permit)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MVV가 발급되므로 근로허가서를 네덜란드에서 근무할 직장의 고용주를 통해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통상 근로허가서 취득 절차와 MVV 신청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 * 근로허가서 발급은 노동청 양식 AV320 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득증명, 파견자와 본사 간 근로계약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여권사본, MVV 신청서 사본,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증 초본,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할 것이라는 보증서 등의 서류가 요구되며 동 과정 또한 지사 또는 법인설립을 대행한 네덜란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MVV를 취득한 외국인은 네덜란드 도착 후 3일 이내에 입국한 가족 동반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시청직원 파견근무)에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IND(네덜란드 이민성) 인터뷰, 관할시청 거주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여권사진 2매, 보험증, 고용계약서 집 계약서 등(단 가족 동반시 결혼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 확인증이 추가 필요)의 서류를 구비한 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카테고리 B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거주신청금(일종의 비자수수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약간의 요율 변경이 있음)

- * 거주신청금: 본인 EUR 258, 12 세 이상 동반가족 EUR 258, 12 세 미만 동반 가족 EUR 169 (적용 시기, 적용 대상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신분증(거주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하는 데, 같은 회사의 주재원 또는 동일 주재원의 가족일 경우라도 같은 유효기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유효기간은 IND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갱신시에는 사진 2매와 구신분증을 IND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소재지 보건소에서는 우리나라의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폐결핵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첫 1년간 총 3차례의 X-Ray 촬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한국에서 가지고 와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이 안될 경우 다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마쳐야 한다. 네덜란드의 이민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므로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 Knowledge Migrant 시스템에 의한 입국절차

‘Knowledge Migrant’ 시스템은 네덜란드가 외국의 고급이민자 유입촉진을 위해 2005 년도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고소득자 및 지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Working Permit’ 을 받지 않고 MVV가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이민자 입국수속보다 간편하며 통상 5년간의 거주허가증을 발급받게 되어 거주편의가 크나 동 제도 수혜를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격요건은, 연봉 45,000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이거나 나이가 30세 미만인 자로서 연봉 32,600유로 이상인 대학원졸업생 또는 대학교수 등 지식근로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

수속절차는 먼저 지식근로자를 초청할 네덜란드 진출기업은 현지 이민성(IND)에 ‘지식 근로자 추천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에서 네덜란드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기업들도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입국대상 지식근로자용 입국신청서를 교부받아 관련된 서류 일체를 IND에 제출하면 된다.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며, 거절되는 수도 있다.

지식근로자로 승인이 되면 MWV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며 이후 입국하는 방법과 절차는 일반 이민자 입국수속절차와 동일하다.

나. 이삿짐 통관

모든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단,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것으로서 반입할 때 자동차 소유기간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관세청에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이사화물 통관 전문기업을 통해서 통관을 하게 된다. 2005년 들어 주재원 이사화물에 대해서도 최근 구입한 고가품의 경우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삿짐 구입 발송시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던 물건으로 판정되도록 포장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면세신청서는 신청서가 있을 때에 조건부로 효력을 발생하며 확실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소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사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면세신청시 유의사항 (전문통관업체가 대행하므로 참고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최종 이사물품 통관 예정일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신청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통관예정일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Enig Document" 신청서를 교부받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이사 물품은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사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 양도 또는 판매 되어질 수 없으며 이는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만 적용된다. 만약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물품을 판매,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해당 관세청에 서신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정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이사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시에는 일반 관세법이 적용된다. 즉, 술, 담배, 등화란의 관세청에서 규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이삿짐에 신규로 구입한 전자제품, 골프용품 등 고가의 신규구입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삿짐 발송시 최근 통관동향(전수조사 또는 랜덤조사 여부 등)을 이미 정착한 주재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다. 주택 구하기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또는 이민자 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전통가옥 (Rijthuis: row house로서 한국의 연립주택과 유사하나 집 앞 또는 뒤에 작은 정원을 갖추고 있음)과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이다.

전통가옥의 경우 대개 2-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층은 거실 및 식당으로 2층 또는 3층은 침실 및 다락방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이 좁고 가파른 것이 특색이다.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 (암스테르담 인근위치)의 경우 EUR 1,500-3,000/월 수준이며, 로테르담의 경우 이보다 약 20% 정도 낮다. 아파트는 방 2-3개(창고별도)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가격은 대략 EUR 1,500- 2,000/월 수준이다(세미퍼니쉬트 기준, 가구가 전무할 경우 통상 500유로 이상 싸진다).

주택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가격과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업체 수수료는 대개 1개월분 임차료와 VAT(17.5%) 기타 행정수수료 등이며, 계약 시 임대인에게 1개월 또는 2개월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예치금 (퇴거시 주택 원상복구 여부 검사후 반환)과 1개월분 임차료를 선불하여야 하여야 한다.

임차료 인상은 연 1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요율은 연간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대략 1-2% 수준), 임대료에는 편의시설 사용료(가스, 전기, TV 수신료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사소한 보수사항은 임차인 책임 사항이다.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본사 귀임, 전근발령에 대비, 계약서 기본약관에 "외국인 조항" 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에는 통상 해지일 기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내부시설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은 대략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진다.

- ① Fully Furnished: TV, 냉장고, 침대, 식탁 등을 비롯, 입주자가 요리, 식사, 세면, 수면 등을 위한 시설이 일체 갖추어진 집의 형태
- ② Semi-Furnished: 바닥재, 커튼, 램프 및 부엌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집의 형태
- ③ Unfurnished: 내부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집의 형태(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부 페인트칠과 벽지공사, 전구설치 등 일체를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

라. 은행구좌개설

은행구좌 개설시 소재지에 따라 회사 신분보증서 등의 행정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 없이 구좌를 개설하는 수도 있다. 구좌 개설시 Pin 카드(일종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등 두 종류의 카드를 발급해 준다. Pin 카드는 현금인출 및 대부분의 대금결제시 사용하는 카드이며,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일부 식당 및 호텔비 지불시 사용되며, 네덜란드의 일반 시내상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유럽국 여행 또는 비즈니스, 인터넷 물품구입 및 각종 예약시 필요하므로 네덜란드에서는 Pin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할 것이 권장된다.

현지 은행에서 현지 유로화 및 달러화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암스테르담에는 한국외환은행 지점이 있다. Checking Account(수시로 입금, 출금 가능) 및 Savings Account (일정금액 이상 예치시) 모두 가능하다. 구좌개설 약 1주일후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카드 (일종의 직불 카드)를 교부 받게 된다. 별도의 은행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bank statement가 예금자에게 송부된다. 물품 구입 대금이나 공공요금은 Giro Transfer Form이나 Credit Transfer Form (Slip)을 이용, 본인 구좌에서 이체 지불한다. 인터넷뱅킹은 보안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일반 지불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 전화신청

여권과 시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전화국에 신청하면 된다. 거주 증명서가 없는 경우 신원증명을 위해 보증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전화를 신청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집이든 사무실이든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할인요금 이용 다이얼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바. 자동차 및 비품구입

자동차는 네덜란드에서 거주신고를 필한 후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시 약 40%의 BPM (일종의 특별소비세)이 부과되므로 인근국보다 자동차를 고가에 구입해야만 한다.

자동차구입은 주로 딜러를 통해 구입하나, 중고차도 고가이므로 여러 곳의 차량가격을 두루 검토한 후 구입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시 1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하는 데, 이 경우 보증기간 없이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이다.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특정 개인이 3년 정도 사용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학교, 회사, 지인 등을 통해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유료도로가 없는 대신 자동차세, 도로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부분이 자가차량 주차증을 구입하여 집 앞에 주차하게 되는데 본인차량 주차증과 방문객 차량 주차증 등 2종을 시청에 가서 구입하여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동 주차증은 분기별로 자동 갱신 및 송부(자동갱신 시청해야 함)되며,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 번잡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 앞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가구, 비품, 전자제품 등은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구류는 통상 IKEA에서 구입한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필수품은 Makro, Hanos, MediaMart(독일계), BCC(영국계) 등의 하이퍼마켓 또는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종류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 자녀교육

현지 거주자의 자녀는 조건 없이 현지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다. 현지 이민일 경우 화란어로 교육하는 네덜란드 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으며 네덜란드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면제된다(2005년부터 16세 이상도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주재원의 경우 통상 국제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게 된다.

네덜란드에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많이 진출해 있어 국제학교가 지역별로 많이 있다.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수업료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취학시킬 수 있으며 주재원의 자녀도 현지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초등 과정은 브리티시와 인터내셔널 2개, 중고등과정은 인터내셔널스쿨과 브리티시 2개가 있다.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인터내셔널스쿨(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18000유로 이상) 대신 브리티시스쿨(연간 12000유로 이상)에 취학시키기도 한다.

수업료가 비싸지만 학교시설이 우수한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의 경우 입학 신청 후 T/O 사정에 따라 입학 허가를 받을 때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재원 발령과 함께 입학수속 서류를 사전에 발송하는 등 학교당국과 사전 유선접촉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저학년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일부 부분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져오는 것이 좋다. 국제학교 입학은 통상 학부형 및 학생과의 인터뷰를 거쳐 입학 승인이 나게 된다. American School의 학제는 통상 Kindergarten 4-5세, Elementary School (Grade 1-4) 6-9세, Middle School (Grade 5-8) 10-13세, High School (Grade 9-12) 14-18 세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국제학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he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
 - 주소: Sportlaan 45, 1185 TB Amstelveen
 - 전화: +31 20 347 1111
 - 팩스: +31 20 347 1222
 - 홈페이지: www.isa.nl
 - 이메일: admissions@isa.nl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Rotterdam
 - 주소: Verhulstlaan 21, 3055 WJ Rotterdam
 - 전화: +31 10 422 5351
 - 팩스: +31 10 422 4075
 - 홈페이지: www.aisr.nl
 - 이메일: information@aisr.nl
- The American School of the Hague
 - 주소: Rijksstraatweg 200, 2241 BX Wassenaar
 - 전화: +31 70 512 10 60
 - 팩스: +31 70 511 24 00
 - 홈페이지: www.ash.nl/index1.html
 - 이메일: admission@ash.nl
- The British School in the Netherlands
 - 주소: Vlaskamp 19, 2592 AA Den Haag
 - 전화: +31 70 333 8111
 - 팩스: +31 70 333 8100
 - 홈페이지: www.britishschool.nl
 - 이메일: info@britishschool.nl
- The British Primary School of Amsterdam
 - 주소: Anthonie van Dijckstraat 1, 1077 ME Amsterdam
 - 전화: +31 20 679 7840
 - 팩스: +31 20 675 8396
 - 홈페이지: www.britams.nl
 - 이메일: info@britams.nl

아. 병원 이용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또는 주재원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수준에 맞추어 별도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의료보험료는 통상 4인 가족의 경우 월 500유로 이상이며 대부분의 의료비가 커버된다.

의료보험 가입후 가정의를 별도로 수배하여 정해 놓아야 종합병원에서 2차 진료가 가능하다. 단, 응급환자 발생시는 가정의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선지불하고 후지원을 받게 되는데 해당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의료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통상 3개월 주기로 신청하여 환급 받는 것이 좋다.